



[뉴스]
비상하는 LCC
진에어
대형기로 중장거리 개척
02



Economy

코스피	2145.12 (-16.73)	코스닥	718.87 (-12.63)
금리 (국고채 3년)	2.04 (-0.01)	환율 (원-달러)	1134.30 (+2.90) (15일)

청소년까지 번진 자살공화국의 슬픈 자화상

‘또래’간 경쟁에, 가족갈등에… 2만명이 ‘자살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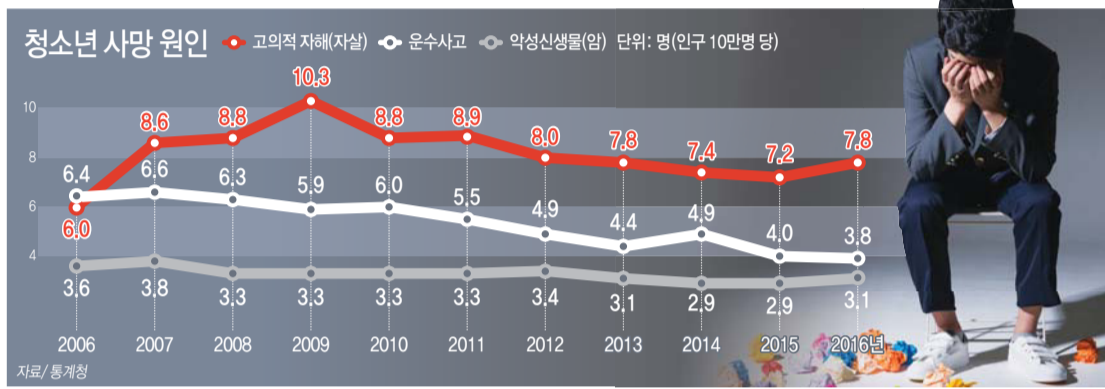
(10대 청소년)

지난 1일 서울 은평구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8일 경영난에 시달리던 치과 원장 A(52) 씨가 대구 수성구의 한 공원에서 자살했다. 일련의 비극은 우리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세대별 자살 원인과 문제점, 예방 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자, 살자! 자살률 1위 오명 낱출하자

1 아이들, 왜 자살을 선택했나

작년 청소년 3일에 1명 자살 자살시도 451명 ‘역대 최대’
무한경쟁이 부른 사회 재난 SNS 자해콘텐츠 영향도 커



〈청소년 자살원인〉

1. 학업스트레스 41%
2. 가족갈등 22%
3. 선후배 등 갈등 8%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자살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2009년 10.3명(인구 10만명 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10대들의 SNS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과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률 증가를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입을 모은다.

◆10대 자살 원인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사물에 한 명 풀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시도 학생은 4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7 학교보고기 반 심리부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보다 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은 45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37명이었던 자살시도자는 2012년 63명, 2013년 74명, 2015년 258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451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 자살 시도자는 2012년 3명에서 2017년 36명으로 5년만에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자해 관련 콘텐츠가

자살 저연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업 문제나 가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SNS를 통해 강한 자극을 받다 보면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왜 죽고 싶어하는 걸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성적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27.3%), 가족갈등(22.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8.3%), 경제적 어려움(1.7%)이 뒤를 이었다.

제갈정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학교 성적과 대학 입시 등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10대들이 친구를 전부 경쟁 상대로 인식하다 보니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는 학생도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검사 응시 학생(189만4723명) 가운데 4.36%인 8만2662명이 ‘관심군’에 속했다. 1만6940명(0.89%)은 수위가 더 높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관심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자살위험군은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청소년 자살을 막을 방법은?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 대책 및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파리서 현대 수소차 투싼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가스 업체 에어리퀴드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투싼’을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와 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뉴시스

메트로미디어 ‘2018 제약바이오포럼’

제약-바이오 경계 넘어...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인약품 복제약)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학의약품 복제약(제네릭)의 과열 경쟁과 신약 부재로 인한 매출 침체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사이 바이오 의약품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3년 9억달러(약 9600억원)에서 2016년 43억달러(약 4조 6000억원)로 3년새 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관련 시장은 2020년에는 304억달러(약 33조원), 2026년에는 800억달러(약 8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오는 2020년 까지 바이오시밀러 국내 생산 200억 달러, 수출100억 달러를 목표로 적극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 동안 합성의약품에 집중해온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어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CJ헬스케어 등 대형 제약사들 역시 바이오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독점 판매에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 상황에 맞춰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31일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2018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강경선 강스스템바이오 이사회 의장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전망을 비롯, 날로 커지는 제약과 바이오산업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 제: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를 넘어
- 일 시: 2018년 10월 31일 9:00~11:30
- 장 소: 서울 을지로입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 최: 메트로미디어
- 문 의: (02) 721-9826
- 참가비: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사전등록: forum@metroseoul.co.kr 또는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로 신청

metro®

“폐북, 국내계정 3.5만개 유출… PW 변경을”

(비밀번호)

방통위, 유출 경위 등 조사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한국인 개인정보 약 3만5000개가 유출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으로 인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방침을 밝혔다.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 계정 약 5000만개의 액세스 토큰이 탈취됐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1일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유출규모 및 유출경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지난달 발생한 페이스북 네트워크 해킹 사건 당시 해커들이 계정 40만개를 통제 아래 두고 사용자 약 29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1400만명은 연락처 정보, 성별, 구사하는 언어, 종교, 친구와의 관계·지위, 최근 로그인 정보와 검색기록, 사용하는 디바이스 유형 같은 더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당시 해킹의 영향을 받은 사용자 수가 5000만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또 영향을 받

았을지도 모르는 사용자 포함 해 약 9000만 명의 사용자 계정을 강제 로그아웃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14일 페이스북은 한국인 유출 계정 수는 3만4891개로 추정된다고 방통위에 알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이용자에게 조치할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당부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사이트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1주일 이내에 해킹당한 사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한 뒤 새로 설

정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지역에서 로그인할 때 추가적인 보안 수단인 2단계 인증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확인되지 않은 로그인 알림받기’ 기능을 이용해 자기 계정정보를 사용하여 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앱과 웹사이트 중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방통위는 한국인 개인정보의 정확한 유출규모와 유출경위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고 법률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하와이 가는 LCC’… 대형기종 띄워 중장거리 개척

비상하는 LCC

진에어

상반기 매출 첫 5000억 돌파
‘393석 대형기종’ 탄력적 운영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매출 2위인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동안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진에어는 올해 노선 수요에 맞춘 탄력적 기재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경쟁 LCC와 달리 중장거리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는 대형기종에 속하는 B777-200ER(393석)을 도입, 업계 최초로 미국 하와이에 비행기를 띄웠다. 기존 LCC들



진에어 항공기.

이 멀어서 가지 못했던 노선들에 항공기를 투입하면서 차별화를 꾀한 것. 이를 통해 각 노선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석 조절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운수권으로 인해 증편이 어려운 노선일 경우 B777-200ER 항공기를 투입하면 B737-800 2대를 운영하는 효과

(공급석 확대)를 얻어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B777-200ER(좌석수: 393석) 항공기의 특징은 기존 LCC가 주로 운용하는 B737-800(좌석수: 189석) 항공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좌석 공급이 가능하다.

진에어는 지난 6월 신규취항한 조호바루 노선의 탑승률이 최근 80%에 육박하

는 등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자 연중 운항을 결정하기도 했다. 수요에 따라 B777과 B737을 교대로 투입, 공급량을 조절해 수익성을 높일 것인 전략이다. 여기에는 조호바루에서 육로이동이 가능한 싱가포르에 비행기를 띄우는 LCC가 없어 대체노선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진에어는 올해 잇따른 악재로 올해 초 수립했던 사업 목표 달성은 힘들게 됐다. 특히 국토부의 제재조치로 항공사 수익과 직결되는 사업 확장 제한과 신규 항공기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다. 면허 취소는 간신히 면했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은 불가피해진 것이다.

진에어가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와 노선을 배분받지 않더라도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빠르게 추격해오는 티웨이항공에 2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현재 진에어의 국제선 노선수는 30개 수준이지만 티웨이항공은 40개를 넘어선 상태다.

또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한다. 진에어가 연말까지 항공기 26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현재 37대인 항공기 보유 대수를 올해 말 39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진에어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연말까지 항공기 24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진에어와의 차이도 2대로 좁혀질 전망이다.

다만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미국 보잉사의 B737-800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해당 기종은 진에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이 신규 항공기를 도입해도 단순 좌석수만 놓고 보면 여전히 격차가 있다”며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을 이행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외국인, 韓 채권 9개월 만에 순매도

1.9조 순유출… 잔고 112조620억원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도 이어지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종지부를 찍고 지난달 채권 시장에선 9개월 만에 자금이 빠져나갔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인은 상장채권 2조324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4조2000억원 규모의 만기상환으로 총 1조9120억원이 순유출됐다.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보유잔고도 112조62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1000억원), 유럽(-8000억원)에서, 종류별로는 국채(-2조1000억원) 및 회사채(-1000억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의 순유출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컸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는 올 1월부터, 기준금리는 지난 3월부터 역전됐지만 외국인은 계속 한국 채권을 사들였다. 원화가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면서 외환 거래에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좀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급등(원화 약세)했다. 더 이상 환율 덕을 보기도 어렵게 된 셈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주 청소년 밀착상담 자살률 ‘제로’

>> 1면 ‘...2만명이 자살위험군’서 계속

청소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전국 4위)는 10대 자살 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등굣길 캠페인, 우울 타파 자살 예방 프로그램, 마음성장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온 제주도는 3년째 자살률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센터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가 상담한 학생은 1513명, 심층평가한 학생은 1514명에 달했다.

도 교육청은 전문의 상담 이후 ‘혼디거

넬름’을 통해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에서 제주 학생들의 건강만족도는 2015년 7.49에서 지난해 7.75를 기록하며 전국 1위로 등극했다. 삶의 만족도도 2년 만에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권일남 교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터놓고 대화할 상대이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생명존중가’를 발굴해 아이들끼리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놓고 ‘살바싸움’

한경연 “소상공인 구성비율 90%는 돼야 대기업에 해제심의 요청권한 부여”

올해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붙은 대기업편에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먼저 당겼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15일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6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자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를 ‘소상공인 구성 비율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엔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다소 낮춰 75%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격 소상공인 단체 기준은 회원사가 10~50개사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10개사’ 또는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회원수는 다소 다르지만 비율은 모두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이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한경연의 주장인 셈이다.

NH투자증권, 기준금리 1.75%로 인상 전망

NH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15일 “9월 물가 서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안) 개선과제〉

분야	시행령(안)	개선안	
신청요건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30%	90%
	신청사유서 제출*	제출의무 無	제출의무화
심의위원회	의결기준	과반출석·과반찬성	재적의원 2/3 찬성
	구성요건(대면단체·법인 정의)	중기부장관 고려	재량남용 방지조치 필요
대기업 권한	지정해제요구권	중기부장관만 有	대기업 부여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無	대기업 부여

*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만료 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경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특히 2011~2012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때문에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뼈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도 중소기업들 입김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게 주장의 속뜻이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 단체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소상공인단체가, 추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은 중기부가 각각 할 수 있고 해제 심의 중기부 장관만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면 대외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 보호라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명분을 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쥐선 않겠다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면서 시장 초점은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다’에 맞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인상 이후 단기금리는 하락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만약 10월 금융위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더라도 11월 금리인상 신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업계 채널 지각변동 촉발

설계사, 수당 많은 GA로 대이동... 보험사 유통망 흔들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사, 보험료에 회계기준까지 부담 이미 이탈 시작돼 추가적 대책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보험설계사 이탈을 겪고 상황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대규모 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증가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수고용직은 특정 회사에 소속돼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카드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에만 일부 직종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 반발이



상당하다.

보험업계가 유독 고용보험 의무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전체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지만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보험설계사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세금, 근로자성 증가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16.5%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38%)은 2배가 넘었다. '가입 여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45.5%)까지 합치면 83.5%가 사실상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부 주관으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설계사들의 대규모 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고 근로자성도 강화돼 설계사들의 자유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 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돼 겸업이 불가하다. 즉 전속돼 있는 보험사 외에도

른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행위는 겸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업 활동이 더 자유롭고 수당이 높은 독립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는 설계사가 늘어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미 설계사 이탈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는 지난해 말 12만2190명보다 4192명이 급감한 11만7998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만8729명이던 설계사 수는 2016년 12만6161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2년 약 3만명이었던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22만3000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설계사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가입을 꺼리는 설계사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떠나가는 설계사를 마냥 잡

아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연간 435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부담액은 6000억원대까지 증가한다. 지난해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이 7조 832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이 시급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까지 충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실시될 경우 고용보험료는 고정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도 "전속 설계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현대차 유럽 공략 '천군만마'

문 대통령, 수소차 '넥쏘' 깜짝 시승 보수시장 유럽서 독특한 홍보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파리 중심가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출한 '넥쏘' 수소 전기차를 탑승한 뒤 얼마 광장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보수적인 유럽시장에서 현대차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의 현지 1호 수출 수소전기차인 '넥쏘'를 깜짝 시승한 것에 대한 완성차 업계 반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파리 시내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시승 일정을 소화했다.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파리까지 와서 수소차를 시승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유럽 수소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보수적인 유럽시장, 긍정적 평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은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한국모두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대세라는 트렌드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제서야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실제 유럽 시장에서 SUV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으며 올해 볼보의 더 뉴 XC40이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프랑스 완성차업체인 푸조·시트로엥(PSA) 그룹은 최근 파리모터쇼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시장에서 현대차가 수소전기차를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 대통령의 수소전기차 시승을 통해 독특한 효과를 본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완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트렌드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며 현지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서야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인 수소 전기차를 소개하는데 (문 대통령의 시승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내에서 현대차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2025년까지 유럽 수소차 5000대 보급 목표

현대차는 14일 프랑스에 2025년까지 수소차 50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6일 프랑스 파리 웨스턴 방돔호텔에서 에어리퀴드, 엔지 등 프랑스 에너지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에어리퀴드는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보고 수소 분야에 투자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꼽힌다. 엔지는 에너지저장장치, 가스 생산 등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양성운 기자 ysw@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무료 자문, 휴양시설, 제휴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 11종의 사업성 경비 최대 5% 포인트 적립
- 병원·약국·대중교통 5% 할인
- 전 주유소 리터당 50원 할인
- 핸드폰 구매 시 요금할인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9988.or.kr) 복지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계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DGB, 지주사 vs 이사회 힘겨루기... 행장선임 '하세월'

(은행)

금융 다이제스트

신한은행

금리 3.7%, 2000억 규모
원화신증자본증권 발행

신한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바젤III 기준 적격 원화신증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증자본증권은 5년 콜옵션을 보유한 영구채 형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2018년 발행된 원화 신증자본증권 중 가장 낮은 3.7%다.

영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증자본증권)은 바젤 III 조건에 부합하는 만기 없는 영구채 성격의 조건부 자본증권으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시 원리금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및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달(은행업감독규정 제 26조)할 경우 이자(배당)지급이 제한되는 자본증권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배종우 올림픽션수준 PB센터지점장(오른쪽)이 지난 12월 '28회 글로벌 웰스 서밋 앤 어워드 2018'에서 '2018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모델 우수 PB은행'으로 선정, 수상 후 무바라크 마사우드 PBI지(誌) 사업개발부문 이사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영국 PBI誌 선정, 7년 연속
글로벌 혁신 우수PB은행상

KEB하나은행은 영국 금융전문지 'PBI지'로부터 '2018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모델 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PBI지의 '제28회 글로벌 웰스 서밋 앤 어워드(Global Wealth Summit and Awards) 2018'에서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모델 우수 PB은행상', '남아시아 지역부문 우수 PB은행상', 'M&A를 통한 성장전략 보유 우수 PB은행상' 등 세 부문에 동시에 석권했다. /김문호 기자 kmh@

신한은행

'셰이크 유얼 쏘' 페스티벌

신한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워너원과 함께 대고객 경품 증정 이벤트 '셰이크 유얼 쏘(Shake your SOL)'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먼저 'Shake your SOL(흔들기)'은 신한 쏘(SOL)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한 뒤 흔들기만 하면 즉석에서 스타벅스커피쿠폰과 GS25 모바일 쿠폰 증정한다. 'Shake your SOL(소개하기)'은 지인에게 신한 쏘(SOL)를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기아차 쏘울(1명), 가족 해외여행 상품권(5명) 등을 제공한다. 'Shake your SOL(영상공유하기)'은 나만의 쏘 흔들기 영상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 수가 많은 고객 순으로 갤럭시노트9(5명), 호텔 상품권(15명)을 증정한다. /유재희 기자

'지배구조개선안' 갈등 심화
지주회장 겸직 가능성 논란
행장 공백사태 장기화 전망
18·19일 지배구조 재논의

DGB대구은행이 또 다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달 DGB금융이 발표한 지배구조개선방안을 두고 지주사와 은행이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은행 이사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내년까지 은행장 공백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도약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 4월 박인규 전 행장이 비자금조성과 채용비리 등에 연루돼 행장직에서 물러나 박명흠 부행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개선안을 추진하고,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을 '자회사(은행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주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난 10일 대구 동구 DGB대구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두번째줄 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일 DGB대구은행혁신센터에서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개선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구은행

은행혁신센터에서 "은행장 추천권을 지주사가 갖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 이사회 측은 김 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개선안이 본인의 권력 강화와 은행장 겸직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현직 임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장 장기공백이 지속돼 김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DGB금

융은 현재 은행장 등 후보의 경력을 '금융회사 경력 20년 이상' 기준에서 '금융권 임원 경력 5년 이상', '은행 사업본부 임원 2개 이상 역임', '지주사 및 타 금융사 임원 경험'을 최소 요건으로 뒤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5년 이상의 임원들이 인적 쇄신 차원에서 물러나거나 채용비리 등에 연루돼 있어 내부에서는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연말까지 (채용비리 관련) 사법처리가 일단락되면 후보군을 대상으로 CEO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보

험 캐피탈 등 임원 경력을 쌓게 하고, 일정 경력이 쌓이면 이들이 차기 은행장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1년 이상 차기 은행장 선임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DGB대구은행 노조는 양측 이사회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사와 은행 이사회가 행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주사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선진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은행 직원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며 "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김 회장의 지배구조개선안 추진이나 은행장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채택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사와 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오는 18일과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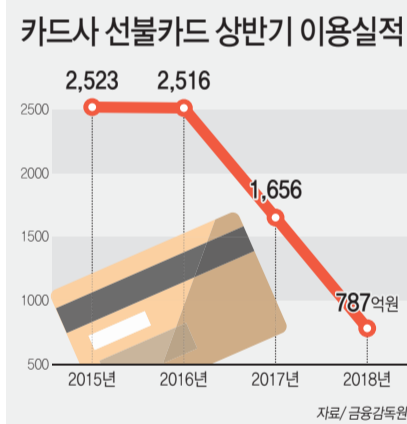
신용카드 혜택 등 2030 저격... 코나카드 '고공행진'

(선불식 충전)

선불카드 하락세에도 실적 굳건
올해 안에 200만장 돌파 전망
한도 없는 혜택 등에 인기몰이

카드업계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선불식 충전카드 코나카드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30세대를 겨냥해 달 혜택을 업데이트 시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연내 200만장이 넘을 것이라 관측까지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선불카드 누적 이용실적은 787억3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6억5800만원(5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8개 카드사는 2015년 상반기



2523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6 2516억원, 2017년 1656억원, 2018년 787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코나아가 출시한 선불카드, '코나카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홍보를 시작한 이후 2분기에는 46

만장, 3분기에는 90만장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가 90일 만에 50만장 발급된 것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

선불카드는 카드에 연결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 카드를 충전한 후 충전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해당금액을 기록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 때문에 현금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제공하고 있다.

코나카드의 장점은 무엇보다 다른 카드와 차별화된 혜택이 꼽힌다. 혜택이 고정돼 있는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혜택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 신용카드가 실적 충족여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면 코나카드는 결제 시 0.2% 캐시백 쿠폰 20% 할인, 오크밸리(수영장·사우

나) 50% 할인 등 조건, 한도 없는 기본 혜택을 제공한다

때문에 코나카드 가입회원은 20대가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23.3%, 30대가 19.5%로 뒤를 이었다. 4050세대도 15.5%로 구매력이 있는 장년층에서도 적지 않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코나카드는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 선불 충전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충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코나카드 잔액과 교통카드 잔액이 호환되지 않는 것. 실제로 이용한 결과 카드에 잔액이 있더라도 버스와 지하철의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교통카드 충전은 편의점 및 역사에서 하고, 잔액은 편의점 등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KB금융, 통합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7개 계열사 데이터 통합 활용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대"

KB금융이 7개 계열사의 신용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KB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그룹 계열사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한 '그룹 통합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계열사 자체 정보만을 이용한 기존 신용평가모형과 달리 은행·증권·손해보험·카드·생명보험·캐피탈·저축은행 등 KB금융 내 7개 계열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이다. 업계 최초로 금융그룹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했다. 이와 함께 KB금융의 데이터는 물론,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폴러(Thin filer)에 대한 평가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모형의 성능 제고를 위해서는 머신러닝 기술(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모형의 고도화를 꾀했다.

KB금융은 '그룹 통합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중·저신용 고객군에 대한 평가 정교화가 가능해져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추가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가이드라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SK화학, 최태원의 '차이나 인사이드' 허브로

(이노베이션·SKC)

중한석화 협력강화 이야기 나눠
7400억원 투자로 생산능력 확대
SKC, 2022년까지 1兆매출 목표

SK 계열의 화학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태원 회장의 '차이나 인사이드' 전략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차이나 인사이드는 중국에서 번 돈을 재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시장에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Insider)'로 접근해 중국을 내수 시장으로 삼아 제 2의 SK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다이허우량 시노펙 회장을 만나 중한석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적 협력관계 강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과 링이원 시노펙 부사장도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

(SK이노베이션 화학사 주요 중국사업 현황) SK 이노베이션

구분	개요	생산제품	합작사 및 비율
중한석화 (중한석유화학유한공사)	SK 중합화학이 시노펙과 손잡고 후베이성 우한시에 건설한 NCC로 2014년 상업가동을 시작함. 한중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로, 총 투자비 3.3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임.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시노펙 35:65
상해 용제 JV (상해고교-SK 용제 유한공사)	2005년 설립한 SK최초의 중국 합작법인으로,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용제 생산업체로 자리매김	탈방향족 용제 방향족 용제	시노펙 50:50
닝보 EPDM (닝보-SK 합성고무 유한공사)	중국 국영기업인 닝보 화공과 제휴하여 절강성 닝보에 EPDM 공장 건설	EPDM	닝보 화공 80:20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한석화는 SK이노베이션과 시노펙의 합작 업체로 에틸렌 80만톤 크래커를 중심으로 부타디엔, 아로마틱, PE, PP, MEG 플랜트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4년 가동 첫 해 흑자를 기록한 중한석화는 지난해 608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부채비율은 2014년 235.5%에서 올 상반기 19.1%로 급감했다.

중한석화의 초기 에틸렌 생산능력은

80만톤이었다. 지난해에는 83.6만톤으로 가동률 105%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약 9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전망이다.

또 중한석화는 총 7400억원의 투자를 통해 크래커 및 유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설 작업이 완료되면 에틸렌 110만톤, PE 90만톤, PP 70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화학제품 생산능력이 약 40%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 규모 확장이 현실화되면 중한석화는 오

는 2020년 SECCO에 이어 중국 내 2~3위권 NCC업체로 등극하게 된다.

중한석화의 증설은 이미 심의와 비준을 완료, 올해 설계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오는 2019년 자재구매와 본격적인 시공을 마치면 2020년 6월께 증설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SKC도 중국에서 다양한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C 및 연결 자회사들의 중국사업 총 투자액은 16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약 25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SKC는 2022년까지 15개 이상의 생산 및 판매포스트(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전자재료, 모빌리티, 친환경, BHC 영역 집중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SKC는 난퉁 PU 스페셜티·습식용액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PO·POD 확장 프로젝트, SKC솔믹스 JV 투자, PVB 필름 사업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SK텔레콤

삼성전자 상용장비로 5G '퍼스트 콜' 성공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15일 SK텔레콤 분당사옥 5G 테스트베드에서 5G 상용 장비로 '퍼스트 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퍼스트콜이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정상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최종 절차다.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문제없이 통과해야 '첫번째 통신 기록'이 남는다.

퍼스트콜 과정에는 ▲네트워크 핵심요소인 기지국-교환기-단말간 연동 ▲ 각종 장비간 운용 시간을 맞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화' ▲5G 가입자가 네트워크에 정상 접근하는지 판단하는 '인증' ▲5GNSA(논스탠드얼론)에 부합하는 5G-LTE망 연동 등 상용 서비스를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가 현지시간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하이포인트에서 열리는 '2018 추계 하이포인트마켓'에서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나투찌(NATUZZI)'와 스마트홈 솔루션 '스마트 리빙 콘셉트'를 선보였다. /LG전자

LG전자-나투찌, 스마트 거실 공동개발

"TV보면 눕는 등받이?" 美 스마트홈 공략

LG전자가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나투찌(NATUZZI)와 함께 미국 스마트 홈 공략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LG전자와 나투찌는 13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에서 열리는 가구박람회인 '2018 추계 하이포인트마켓'에서 스마트 홈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가 명품 가구 브랜드 나투찌와 공동 개발해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스마트 홈 솔루션 '스마트 리빙 콘셉트'는 섬세한 가구 디자인과 편리한 첨단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제시한다.

대표 솔루션인 '스마트 거실'은 LG전자 프리미엄 가전인 LG 시그니처 제품을

나투찌 콜로세오 소파와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사용자는 소파에 앉아 LG전자의 인공지능 스피커나 LG 시그니처 올레드 TV의 매직 리모컨을 통해 음성으로 ▲TV 시청 ▲독서 ▲음악 감상 ▲휴식 ▲일시 정지 등 다양한 실내환경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

고객이 나투찌 소파에 앉아 인공지능 스피커에 "TV 볼래"라고 말하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자동으로 켜지고 소파의 등받이가 뒤로 눕혀진다.

LG전자와 나투찌는 '스마트 리빙 콘셉트' 외에도 스마트홈 기술 개발, 공동 마케팅 등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SK브로드밴드

'옥수수' 뮤직서비스 본격화 'U+멤버스' 가입자 400만 돌파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를 통해 음악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옥수수의 음악 사업은 '보는 뮤직'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확장된다.

우선 신규 서비스인 '뮤직관'을 통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세로 형태의 라이브로 반향을 일으켰던 덩고와 손을 잡고 '고음질의 세로라이브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LGU+

LG유플러스는 자사 할인·결제·적립 통합 서비스 'U+멤버스'가 출시 8개월 누적 가입자 400만명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U+멤버스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변의 편의점, 영화관, 카페 등 제휴 브랜드에서 멤버십 할인과 휴대폰 소액결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U+멤버스는 추가 제휴사를 지속 발굴해 멤버십 할인 및 쿠폰, 이벤트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경험해보세요 동안크림의 놀라운 효과"

P+DNA 피디엔에이 크림

피부관리사의 연어케어, 받아보셨나요?

이제 바르는 크림으로 만나보세요.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피부 재생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베타/아세트/지아미/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물광피부도 동안관리도 크림 하나로

눈가, 입가 주름이 고민이라면 피디엔에이 크림으로 관리하세요. 풍부한 영양감, 짙은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줍니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물광 피부, 동안 관리 효과를 경험하세요.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원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SK㈜ C&C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센터 클라우드 개발검증센터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정보화 신산업

분야인 클라우드 기술 적용 이유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길잡이'

SK㈜ C&C 대구 클라우드센터 구축 우선협상자로 선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통합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완공 예정인 대구센터 정부 최초의 완전한 클라우드 센터로 구축하고, 센터 입주 예정인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교통안전공단 등 79개의 행정·공공기관 시스템의 빠른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SK㈜ C&C는 먼저 대구 클라우드 센터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도입 전략 및 시스템 설계는

물론 개발검증센터 구축까지 진행한다.

SDDC란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물론 각종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를 가상화 기반으로 제공해 클라우드와 연동된 IT 통합 관리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체 클라우드와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사이에서 데이터와 인프라 자원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서 외부의 우수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시스템 적용도 유리하다.

SK㈜ C&C는 또 대구 센터 입주 예정인 79개 행정·공공기관들이 기존 공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시스템·인프라 자원의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 전환 및 이

전을 위한 클라우드 개발검증센터도 제공한다.

SDDC의 특성을 살려 공공 데이터 수요량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 기관이 시스템별로 현재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확보하며 수요에 따라 늘려가는 '스타트 스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 및 SW 도입 검증 체계도 마련해 대구 센터 이전과 함께 펼칠 기관들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개발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자원 효율성 증대로 운용 비용 절감은 물론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인프라 자동 통합 점검이 이뤄져 센터 서비스 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중, 2118억 LNGC 수주

최근 매출액의 2.7% 규모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지역의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1척을 수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11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2.7%에 해당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41척, 49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려 연간 목표치(82억달러)의 약 60%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보면 LNG선 11척, 컨테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연합뉴스

이너선 13척, 유조선 14척, 특수선 3척을 수주했다.

한편 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다. /정연우 기자 yw964@

메탈 브라운 '삼성 큐브'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신규색상 추가... 소비자 선택 폭 넓혀

삼성전자가 메탈 실버·화이트 색상의 '삼성 큐브' 라인업에 신규 색상인 메탈 브라운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삼성 큐브'는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국내 매출 확대에 기여했고 백화점 경로의 공기청정기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업계 최초로 메탈을 적용해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한 메탈 실버 색상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 큐브' 메탈 브라운 색상은 나무 재질처럼 자연스러운 톤과 유광 무광 사이의 은은한 광택감을 적용했다. 메탈 특유의 차가움은 덜어내고 아늑하고 따뜻한



삼성전자가 메탈 실버·화이트 색상의 '삼성 큐브' 라인업에 신규 색상인 메탈 브라운(Metal Brown)을 추가했다. /삼성전자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메탈 브라운 색상 '삼성 큐브'는 15일부터 정정 면적 47.94㎡ 2개 모델로 출시된다. 출고가 기준 가격은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르노삼성, 중형 상용차 '르노 마스터' 출시

마스터 S·L 2가지 버전 선택 판매가격 2900만~3100만원

르노삼성자동차가 15일 르노그룹의 상용차 마스터를 정식 출시하고 고객인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르노마스터는 마스터 S(Standard)와 마스터 L(Large)의 2가지 버전으로 국내에 출시했다. 판매가격은 각각 2900만원, 3100만원이다. 2.3 l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145마력(ps), 최대토크 36.7kg·m의 힘을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0.5~10.8km/l이다.

이 차량은 전륜 구동 방식에 도로 조건에 맞춰 구동력을 제어하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 기능이 함께 제공되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기능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과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르노삼성자동차가 15일 상용차 '마스터'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조절기능까지 기본 제공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세미보닛 타입 구조의 마스터는 충분한 충격 흡수 존을 갖추고 있어 전방 충돌 사고시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 마스터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현재의 3세대 모델까지

38년 동안 발전해 온 품질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국내 상용차 고객들에게 차량 품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스터의 보증수리 내용에 엔진과 동력부품은 물론이고 차체 및 일반 부품까지 모두 3년, 10만km를 보증한다.

/정연우 기자



아시아나항공 뉴욕여행사 스터디투어

아시아나항공이 15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8년 뉴욕여행사 스터디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과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스터디투어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 곳곳의 특색있고 매력있는 볼거리, 맛거리들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현대로템, 제철과 1513억 설비공급 계약

지난해 매출의 5.6% 해당 규모 하반기 집중 수주로 반등 기대



현대로템이 올 하반기 집중 수주를 통해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 상반기 수주 절벽 여파로 철도 부분의 매출감소와 K2 전차 양산의 지연으로 방산 부분의 수익성이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실적에 발목을 잡은 플랜트 부문에서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로템은 계열회사인 현대제철과 1513억6000만원 규모의 현대제철 당진 3소결공장 배가스 청정설비 신규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현대로템 지난해 매출액 대비 5.

6%에 해당한다. 계약일은 2020년 10월 15일까지다.

한편 현대로템의 사업부는 철도, 방산, 플랜트 등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현대로템의 철도 부문은 올해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전체 수주(3조8350억원), 철도분야 수주(2조5770억원)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로템은 올 상반기 1조1270억원(철도 1조240억원)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필립스 'S9000 프레스티지' 세계 최초 한국서 출시

72개 면도날로 15만번 컷팅

(분당)

반복면도에도 피부손상 없어

자사 혁신 기술 집대성

필립스가 자사의 혁신 기술을 집대성한 전기면도기 신제품 플래그십 모델 'S9000 프레스티지'를 15일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필립스 글로벌 남성 그루밍 사업부문 총괄 존 스미스 부사장은 "한국에서 팔리는 전기면도기 3개 중 2개 이상이 필립스 제품"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신제품에 대한 성능을 소개했다.

S9000 프레스티지는 밀착면도와 함께 피부보호를 통해 최상의 면도를 선사한다. S9000 프레스티지의 핵심 기술인 '나노스틸 정밀 블레이드'는 필립스의 80년 면도날 기술에 스웨덴 철강 기술을 더해 초근접 밀착 면도에 최적화되어 있다.

특수 나노 코팅된 72개의 면도날은 분당 15만번의 오차 없는 컷팅을 통해 기존 9000 시리즈 대비 3배 더 날카롭고 정밀한 절삭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최고의 모터 성능 및 지능을 담은 '인텔리전트 셰이빙 센서'가 분당 900번 수염 밀도를 파악해 모터 파워를 조절, 완벽한 맞춤 면도를 제공한다.

또한, '초근접 콤포트 셰이빙 시스템'이 탑재돼 면도 효율을 한층 높였



S9000 프레스티지. /필립스코리아

다. 특히, 일반 성인 머리카락의 1/2 굵기 수준의 54μm(마이크로미터) 초극박 면도망이 빈틈없는 피부 밀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존 9000 시리즈 대비 면도망 트랙 넓이가 50% 확대돼 1.5배 더 많은 수염을 한 번에 정리하며 반복 면도에 의한 피부 손상까지 방지한다.

'슈퍼 스킨 콤포트 링'도 S9000 프레스티지의 격을 한층 높였다. 금속성 안료가 한 겹 더 얇게 특수 코팅된 슈퍼스킨 콤포팅이 피부 마찰을 감소시켜 필립스 역대 최고의 피부 편안함을 제공한다.

출고가 가격은 65만원이다. /구서윤기자

화학기술의 정점
미국 최대 화학기업 **첨단소재사업인수**

전기차 산업의 중심
유럽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설립**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 캠페인은 Google의 tiltbrush를 활용해
가상공간에 3D 이미지를 형상화한 VR아트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
남중국해 **원유 탐사 성공**

떠오르는 자동차 시장
남아시아를 **사로잡은 윤활유기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키움증권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

키움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수수료 부과율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 신청 시 3개월 간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0.1%로 할인되며 미국주식의 경우 최저수수료(7달러)도 면제된다. 또 환전 시 80% 우대환율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내 해외주식 1000만원 이상 타사대체 입고 고객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하이투자증권
30억 규모 ELS 모집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5일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3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600호'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연 6.2%)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 시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손엄지 기자



유안타증권
AI투자분석 '티레이더 3.0'

유안타증권은 15일 기준 '티레이더' 인공지능(AI)을 고도화된 종목분석 기능으로 확대하고, 시장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등 서비스와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인공지능 투자분석 시스템 '티레이더 3.0'을 선보였다.

투자알고리즘을 통해 상승·하락 유망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직관적인 매매신호로 상승·하락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개인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티레이더 3.0'은 유안타증권이 축적한 인공지능 투자분석 서비스 노하우로 맞춤형 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방식을 제시한다.

/손엄지 기자

SK 증권
1100억 증자로 신용회복 순항

새주인 맞은 두 증권사 새 도약 준비

자기자본 5500억 '증권사' 재무건전성·주주가치 제고

최근 새 주인을 맞이한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SK증권은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정성 강화에 나섰다. 지주사에 편입된 하이투자증권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총 1100억원대 유상증자를 통해 신용등급 회복에 나선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SK증권의 대주주가 SK에서 J&W파트너스로 변경되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바 있다. SK그룹 계열 지원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게 근거였다. 지난 7월 말 한국신용평가는 SK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안정적)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도 한 단계씩 등급

을 내렸다. 더욱이 당시 신청자들은 "SK증권이 연내에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체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겨 신용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코멘트 했다.

SK증권 역시 이번 증자에 대해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SK증권의 순자본비율(NCR)은 지난 6월 말 기준 225.7%다.

또 자기자본이 필수적인 IB영업에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SK증권의 자기자본은 55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KTB투자증권(4700억원)을 추월하고 증권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를 통해 SK증권이 강화하고 있는 기후금융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금융상품을 연결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분야다. 지난 9월에는 비금융업권 최초로 녹색채권 발행을 대표 주관

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SK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기존 채권자본시장(DCM) 부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신성장 사업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특화 증권사에 합류한 만큼 관련 전담 팀(부)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DGB금융지주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은 하이투자증권은 영업의 보폭을 넓히게 됐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투자증권(옛 CJ투자증권)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단단한 기반을 갖춘 DGB금융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상반기 기준 대구은행은 국내지점 249개 중 232개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돼 있고 하이투자증권 지점은 서울·경기 10개, 부산·울산·경남 16개, 대구 1개로 수도권·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장기신용등급 'A+'로 상향조정 단기등급 'A2+'서 'A1'로 올려

이에 따라 DGB금융은 금융 복합점포(CIB)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증권사, 보험, 은행을 계열사로 갖춘 BNK금융지주는 올해 CIB에 진출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하이투자증권은 IB부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금융과 채권금융 부문에서 강점을 가졌다. 지난해 연결기준 전체 순이익(1886억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액(894억원)이 IB부문에서 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이 지주사에 편입됨에 따라 나이스신용평가는 하이투자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단기신용등급도 기존 'A2+'에서 'A1'로 올렸다. 이는 IB 사업부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부동산 과세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
한국감정원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와 '부동산 과세 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KOICA·한국감정원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연수의 첫째날 개최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연수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감정원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곳 선정

국토부, 화보집 제작·공개

북한산 파로산소길 등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치 좋은 하천을 조망하며 거닐 수 있는 탐방로를 엄선해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 화보집을 제작해 공개했다.

국토부 자체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후보지 263곳을 추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변경관(50곳), 생태환경(16곳), 역사·문화(34곳) 등 3개의 테마로 선정됐다.

화보집에는 탐방로의 위치와 노선도 및 연장, 소요시간 등의 정보가 수록돼 있고 주변 관광 명소,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었다.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중 서울에는 한강 둘레길 6코스 등이 포함돼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9호선 신북동역에서 한강 둘레길을 따라 금천교까지 가는 11km에 달하는 코스로 2시간 20분가량 소요된다. 코스가 길지만 지하철역이 곳곳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고 전 구간이 평탄한 지형으로 도보여행이 수월하다.

수도권에는 북한산 파로호산소길 등이 선정됐다. 판선유원지에서 남천산림욕장, 봉어섬, 원천인조축구장 등지로 이어지는 코스(17km)다. 판선유원지의 인공폭포부터 숲으로 다리, 폰툰다리 등 경관을 감상하기 좋고 화천군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라이딩 코스로도 주목받는 곳이다.

남한강 여강길은 세종대왕릉~영월루~신록사~목야박물관~강천섬유원지로 이어지는 코스(26km)다. 아름다리나무와 예쁘게 꾸민 산책로를 걸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 4월 시행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종합적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전문가업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업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동강령에는 회계업계 스스로 하는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탁·접대행

위 금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감사인인 감질 행위 금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표준 감사시간 준수 등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다.

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를 접수할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 시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병행한다.

해당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특별팀(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2일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손엄지 기자

'2018 전주 자전거 한마당' 20일 개최

LX-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자전거 대행진·축하공연 등 마련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주시와 함께 문화의 날인 오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과 인근 도로에서 '2018 전주 자전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8아시아게임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박상훈 선수가 속해있는 LX사이클 팀이 참여한다. 유법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가 속해있는 전주시청 사이클 팀도 함께 한다.

행사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사이클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 자전거 대행진,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된다.

메인행사인 자전거 대행진에서는 사이클 국가대표, 자전거동호인, 전주시민 등 약 1500명이 참가해 행사장부터 기린대로를 거쳐 추천대교까지 왕복 10.5km의 도심 도로를 70분간 달리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도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행진 참가자들은 안전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아크로바틱 자전거쇼와 마술쇼 등 축하공연과 플라멩코, 페이스페인팅, 자전거로 솜사탕 만들기, 자전거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부와 함께 이색 자전거 타기 등도 마련돼 있다.

최창학 시장은 "사이클은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스포츠"라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한자리에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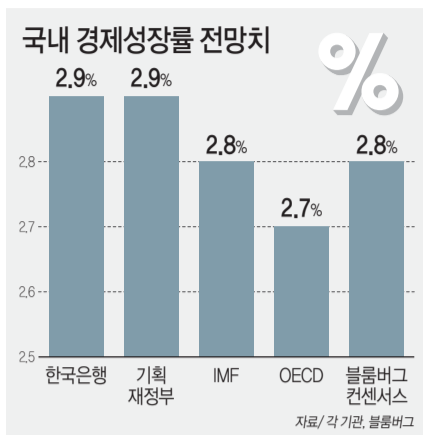
빠질만큼 빠졌다... 고위험 '레버리지 펀드'에 뭉치돈

일주일새 ETF에 1524억원 몰려 레버리지 '몰빵 투자' 자제해야 이벤트 잇따라... 시장 흐름 관건

코스피지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증시가 급락하자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쫓는 레버리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2100선으로 밀리면서 주식시장의 조정 우려가 커졌지만 반등을 기대하며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15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레버리지 펀드 설정



액은 6조834억원이다. 이중 1321억원이 최근 1주일 새 유입됐다.

글로벌 시장이 충격에 흔들리자 주가 반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증권사 등의 적극적인 영업도 자금 유입을 부추겼다.

레버리지펀드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옆

걸음 칠때는 손실이 커지지만, 주가가 오를때 1.5~2배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최근 1주일 새 1524억원이 새로 유입됐다. 3개월 동안 유입된 자금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레버리지펀드의 경우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하락장에선 손실도 크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실제 투자자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여부다. 현시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해 과감히 ETF 매수 버튼을 눌렀지만 자칫 지수가 더 하락한다면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당분간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며 방향성이 없는 '랜덤워크'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번 주 국내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은 메가톤 급이다.

하나금융투자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상반기에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만큼, 만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아시아 시장의 불안과 자금이탈로 위안화의 약세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슈이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한미간 금리 격차를 우려한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안타증권 정원일 연구원은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성장 경로에 있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일찌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단기 저점권에 다다른 것으로 본다. 확정실적 기준 PBR 0.93배(금융위기 이후 저점)인 코스피 2100 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맞벌이 소득 765만원·외벌이 52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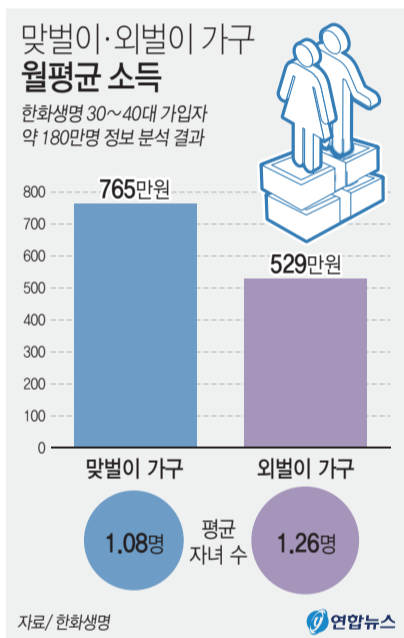
한화생명 3040 가입자 분석 보험료 지출 규모는 비슷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765만원, '외벌이 가구'는 529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생명은 자사 30~40대 가입자 약 180만명의 정보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가구당 자녀는 맞벌이가 1.08명, 외벌이가 1.26명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직장과 육아를 함께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의 3.65%(27만9225원)를, 외벌이 가구는 4.82%(25만4978원)를 보험료로 지출했다. 맞



벌이와 외벌이의 보험료 지출 규모가 비슷한 셈이다.

한화생명은 "외벌이 가구가 보험의 필요성을 더 느낀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소득 하위 그룹(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 외벌이 연 4000만원 이하)은 외벌이 가정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했다. 중위 그룹(맞벌이 8000만~1억1000만원, 외벌이 5000만~1억원)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그룹만 맞벌이의 보험료 납입액이 더 많았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을 써 본 경험은 소득 하위 그룹에서 외벌이가, 소득 상위 그룹은 맞벌이가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의 활용 경험이 줄었다.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활용 경험이 늘었다.

/연합뉴스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부녀회·인터넷 카페 등 신고 절반이 서울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지 일주일 지났다. 담합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 지역이었으며 아파트 부녀회,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의원(서울 중랑구)이 한 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달 5일~11일까지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 중 16건이 서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거래 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 기록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은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 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흥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신화 기자

전자상거래 AI 프로젝트 70% "매우 성공적" 잔액 기준 코픽스 13개월 연속 상승



2020년 기업의 60% AI 사용할 것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가 전자상거래에 적용된 인공지능(AI)의 대부분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자상거래 조직 중 70%는 자사의 AI 프로젝트가 '매우' 또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답했다.

가트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AI 관련 도입, 가치, 성공,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AI를 사용 중이거나 시범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의 기업 관계자들 중 전자상거래 관련 전략적 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이들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응답자 중 75%는 자체 평가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뤘다고 답했다. AI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고객 만족, 매출, 비용 절감이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고객 만족, 매출, 비용 절감 부문에서 각각 19%, 15%, 15%의 개선을 달성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의 43%는 솔루션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솔루션을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다 큰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63%는 상용 AI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전자상거래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평균 13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답했다. 보다 성공적인 기업들의 52%는 개발에 100만달러 이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는 100만달러 이상 200만달러 이하를 사용했고, 5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이들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기업 중 최소 60%가 AI를 사용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매출의 30%는 AI 기술에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 리서치 디렉터 샌디 셴은 "전자상거래는 AI 기술이 발전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며, "고객 응대와 백 오피스 운영에 대한 다차원적인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잔액 기준 코픽스 13개월 연속 상승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은행연합회는 9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은 1.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로써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8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때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nyusoul91@

멕시코서 국내 우수 기술·표준 소개

국내외 표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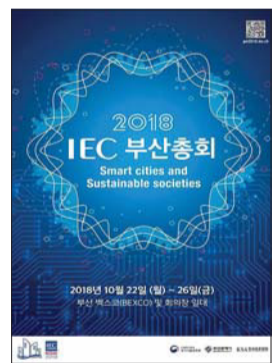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이 제정되도록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스마트시티 기술 및 표준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 총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3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연구모임을 구성해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각국은 자국의 상품 수출에 유리한 표준을 만들고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움직임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 정책 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엔 스마트도시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고, 2013년 20건의 핵심기술 및 연계규격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지난해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 7건의 표준을 제정해 올해 5월부터 민간기업의 통합플랫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IEC 스마트시티 위원회 의장인 마이클 멀퀸(Michael Mulquin)이 IEC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현황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국내외 표준화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국제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난해 국내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시티 표준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참조모델 및 요구기능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표준 사례로서 국제 표준으로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위화감 조성... 통일성 저해 vs 보급품 못믿어, 사제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軍 사제장비 허용논란

현실성 떨어지는 '국방규격' 신뢰 저하, 사제장비 갈망 키워 "미군의 표면적 제원 의존 끊고 엄정한 기준 세워야 국방력 ↑"

최근 군의 '사제장비' 허용 방침에 대해 "군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군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사제장비의 허용의 핵심은 장병들이 자신의 장비를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국방규격'의 부재지, 통일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수품은 민수품과 달리 전쟁터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여야 하기 때문에 '국방규격'이란 엄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피복 및 개인전투 장구류, 소총 및 광학장비는 엄정한 '국방규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전사 출신의 한 예비역은 15일 "사제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는 군인들이 많다. 나의 임무에 맞는 장비가 어떤 성능을 가져야 할지, 혹은 해외 특수부대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유명 메이커의 장비를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해지는 국군의 국방규격은 현실성이 떨어져 일선 장병들로부터 보급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현실성 있고 전장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국방규격이

계속 부재한다면, 사제장비에 대한 장병들의 갈망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사교육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군에 납품을 하는 군납업체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술한 국방규격의 피해자일 수 있다. 군 당국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규격으로 인해 '방산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성 없는 국방규격은 사용자와 판매자 그리고 군 당국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면서 "일부 업체의 주장과 미군 장비의 표면적 제원에만 의존하는 국방규격을 풀어내야만, 건전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이 양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흥 편집장은 "군이 사용하는 조

준경 PVS-11K는 6년 전에 도입된 장비지만, 요구사양은 약 10년 전에 작성됐고, 요구사양의 기준은 거의 20년 전 수준"이라며 "더욱이 광학장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한채, 군 자체 정비를 요구하는 사양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광학장비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명주기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업체를 통해 정밀정비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업체의뢰나 폐기 후 교체가 일반적이다.

장비에 대한 이해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군납 및 방산장비는 국군이라는 우물 속 개구리로 멈춰버릴 것이다. 1980년대 까지 피복 및 장구류 시장은 한국제품이 세계적으로 통용됐지만, 이제는 중국과 대만에게 자리를 잃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에 전시된 위러플러트 장비. 일각에서는 신형 소총의 접안점이 낮아 광학장비의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관 매도 코스피 2140선 마감 15일 코스피지수가 다시 2150선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161.85)보다 16.73포인트(0.77%) 내린 2145.12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31.4원)보다 2.9원 오른 1134.3원으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뉴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르면 11월말 착공

고위급회담서 공동보도문 합의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복구기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로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北 모든 핵무기·핵물질 폐기가 비핵화”

文 대통령 프랑스서 비핵화 강조

“체제보장시 비핵화 조치 이행 美,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해야” 김정은 비핵화 의지 거듭 언급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놓고 “궁극의 목표는 모든 핵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세 차례 김 위원장을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가지를 예로 들었다.

▲북한이 4월 채택한 '새로운 전략노선'에서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 ▲25년 핵 협상사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 ▲풍계리 핵실험장, 장거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추가 폐기 의사 및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가 조치 의향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직접 천명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은)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중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 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권 개선이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채택된 나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대통령궁에서 있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물론 교육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울림' 콘서트를 관람한 뒤 무대에 올라 방탄소년단 등 출연자들과 함께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수도권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

2020 광역도시계획 - 여의도 면적의 83배 그린벨트 해제 예정!

- ▶ 30만㎡ 이하 GB해제권한 국토부 → 시도지사에게 부여
 - ▶ 주택 100만호 택지공급 위해 GB해제 검토중
 - ▶ 국토부, 전수조사 중...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허용-
 - ▶ 정부의 GB정책 - 환경보전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 추진
 - ▶ 중소규모의 GB는 지자체 자율 해제 허용 방침
 - ➔ **전체면적의 GB가 85.5%인 의왕시, 최대수혜 예상**
- 택지공급,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풀 수 밖에 없다!!

내년 2월 입주시작!



신도시 토지매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에 접한 그린벨트 임야

- 성공투자 포인트 -

- ▶ 신도시 1차 설계시, 「**단독주택 용지**」에 포함되었던 지역임.
- ▶ 신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8~10m 도로를 접하고 있음.
- ▶ **경사도가 없는 평지수준의 토지**로 산림 훼손이 심한 낮은 임야임.
- ▶ 도로, 상하수, 통신 등 **기반시설이 매각지 앞까지 들어와 있음.**

강남 15분(청계 IC 600m), 백운호수 인접

네이버에 **학의동 산100-2** 검색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
- 월곶~판교간 청계역** 2024년 개통
- 양재~봉담간 고속화도로 청계C 600m**

【단독 매매 가능한 지분등기 / 위치공증서 발급】

지분투자자로 샀는데 잘못 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 내가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 행사/ 다른 사람에게 동의없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 ▶ 위치공증 인증서 및 매수인간의 토지사용 합의서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본 매각지는 신도시 1차 설계시, **도시용지 범위에 포함되었던 임야**로 신도시가 완성 후, **지가상승은 물론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길이 뚫리면 돈이 보인다

“명품은 명품값을 한다~” 수도권 그린벨트 중 가장 뛰어납니다!



인프라 포인트

- ▶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신도시 개발호재 (2020년 완성)
- ▶ 청계IC 이용, **강남 10분대 진입** (양재~과천~봉담 고속화도로)
- ▶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청계역**」 1km (2024년 개통예정)
- ▶ 백운로·의일로 4~6차선 확장~제2경인고속(북청계 연결)
- ▶ 의왕 **백운~오전동 4차선 신설도로** (2020년 개통예정)
- ▶ 스타필드 규모의 **롯데복합쇼핑몰 (10만㎡) 입점예정** (2020년)

계약금 10% 우리은행 1005-303-474246 (주)백운디앤씨
 ▶청약금→필지배정→현장답사 및 계약금→잔금납입→책임등기·소유권 등기이전

(주)백운디앤씨
 책임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신홍제

031)462-9090

4차 산업혁명 코 앞인데

IP카메라 32%가 해킹에 취약... IT보안 '걸음마'

초기 비밀번호 설정 '단순' 문제
보안취약점 제조사 통보에 그쳐
정부, 화이트 해커 키워나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와 사물인터넷(IoT) 등 기기가 발달했지만, 정작 보안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기기의 경우 홈페이지 등과 달리 특정 이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한 'IP카메라 실태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 제품에서 해킹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설정 비

〈IP카메라 실태조사 결과〉

구분	총 제품수	ID/PW 취약 제품수
2018년 6월		
국내제조사 (18개)	156개	48개 (30.8%)
해외제조사 (35개)	244개	78개 (32%)
합계	400개	126개 (31.5%)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밀번호가 단순한 탓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 해 말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53개 제조사, 400개 제품을 대상으로 공장 출하 시 초기에 설정된 ID 및 패스워드의 취약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제조사(18개) 제품 156개 중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제품은 48개 (30.8%)로 확인됐다. 해외제조사(35개)

제품은 244개 중 78개(32%)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조사대상인 53개 제조사 중 국내 기업인 아이디스(IDIS)가 조사 제품 27개 모두 취약제품으로 분류됐다. 외국 업체인 위드앤올은 조사대상 제품 17개 중 15개, 유니뷰는 11개 제품에서 취약점이 나타났다. 한화테크윈은 조사대상 IP카메라 106개 중 9개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IP카메라의 경우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IP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KISA는 그 결과를 업체나 제조사에겐 통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때는 업체의 동의를 받고 점검해야 해서 취약점을 오픈하는 과정이 어렵다"며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KISA는 IP카메라와 함께 홈페이지,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8억~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안취약점 점검 후 업체와 제조사에게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으로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탐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쇼단(shodan.io)'에 국내 IoT 기기 취약점 정보가 노출되

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또 다시 언급됐다.

실제 KIS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oT 보안 취약점 신고 및 조치 건수는 현재(2018년 상반기 기준)까지 총 962건으로, 최근 3년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단에서는 IP카메라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라면 모두 검색이 가능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최근 KISA는 통신사와 기업, IoT 실증 사업, 보안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 정보를 검색하는 '한국형 쇼단'에 45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며 "한국형 쇼단을 45억원이나 들여 개발하는데 정부가 화이트 해커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정보기술(IT)·콘텐츠 일본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구직자 평균 15곳 지원... 60%는 '좌절'

사람인 295명 취업준비 전반 조사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평균 15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강 국면이 현실화 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인은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295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구직자들은 평균 15개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해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회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하루 평균 3시간을 투자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것으로는 '채용공고 검색'(33.2%)이 가장 많았고, 이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찾아보고 있다'(60.2%)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24.1%),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16.3%), '전공 공부'(6.8%), '표정, 태도, 발성 등 면접 연습'(5.1%), '합격자료 등 취업 정보 탐색'(5.1%) 순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응답자들은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시점부터' 평균 10개월 간 구직활동만 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약 11개월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구직자의 63.4%는 불합격을 맞았다. 목표 기업이 없이 '일단 되는대로 다 지원하고 있다'(61%)는 응답자들이 다수였다.

구직자의 90.8%는 최근의 취업준비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고 했고, 그 이유(복수 응답)로 '취업난으로 경쟁자가 더 많아져서'(56.7%), '채용을 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41.8%), '질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서'(33.2%), '경기가 좋지 않아서'(32.5%), '채용 전형이 더 복잡해져서'(22.8%) 등이었다.

취업 준비 시 가장 신경쓰는 것으로는 '자기소개서'(3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표정, 태도, 발성 등 면접 연습'(14.9%),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14.9%), '직무분야 인턴 등 역량강화'(12.9%), '인적성검사'(5.1%), '전공관련 학점'(3.7%), '어학점수'(3.1%), '제2외국어'(2.4%) 등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비리 퇴직공무원 재취업 이력공시"

김상조 공정위원장 업무현황 보고

윤리규정 개정·신고센터 등 개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의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한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든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훈 등 분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 및 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내달 제정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 마무리한다.

12월에는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도 확충한다. 유치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 심사기준은 12월 고시에 반영한다.

식품·교육·주류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자산업,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 상품 분야 담합도 들여다본다.

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 법무부 등 외국 경쟁당국과 정보·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1인미디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 소송을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표시광고법, 제조물 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부동산 경매 찬바람... 9월낙찰 '역대 최저'

9·13 부동산대책 이후 경매 시장도 주춤해졌다. 지난달 법원 부동산 경매 낙찰 건수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9월에 전국에서 법원경매 8341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3018건이 낙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지옥션이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월 이래 역대 3번째로 적은 진행 건수이고, 낙찰 건수로는 최저치다.

낙찰 건수는 지난 3월 3067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경매시장이 역대 최

저 진행 건수와 낙찰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대전 경매는 95건이 진행됐고 이 중 27건이 낙찰됐다. 유찰된 68건 중 36건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아파트(생활주택)로, 총 41가구 중 36가구가 경매에 나왔지만 모두 유찰됐다.

부산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9월 부산 경매는 539건 중 125건 낙찰되면서 23.2%의 낙찰률을 보였다. 역대 최저 낙찰률은 지난 6월 16.9%다.

부산에서 진행된 539건 중 232건이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으로, 부산 사상구 괴법동 소재 상가 183건이 4~8회 유찰되는

등 악성 물건의 유찰이 계속됐다.

용도별로는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이 주거시설과 토지, 공업시설보다 저조했다.

9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낙찰률은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8.1%에 그쳤다.

건수로 보면 398건이 낙찰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업무상업시설의 낙찰 건수와 낙찰률의 하락을 보면 주거시설에 집중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업무상업시설까지 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악성 물건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도 저조한 낙찰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의 탁상공론식 ‘아무 말’ 대잔치

“일자리 늘리면서, 최저임금·근로시간도 안착토록”

이재갑 노동부장관, 첫 기관장회의

고령자·5인미만 사업장 특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추진 당부

취임 후 첫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노력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정착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간부와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참가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

중해주시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고 하반기 지원이 확대되는 고령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고용동향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속에서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우리 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을 ‘적용 유

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고 충분한 시정 기회는 부여하되 고의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는 엄정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며 “현재 실시 중인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청취에 노력해주고 특히, 산업범위 개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임금 체불 등 핵심 분야와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8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4억원(26.5%) 증가한 만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주시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김현미, 건설사 해외수주 지원 중동 방문

(국토부 장관)

UAE·쿠웨이트·카타르서 4박5일
현지 진출기업과 합동간담회 개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3국을 방문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19일까지 4박 5일간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3국을 방문해 건설협력 및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등 해외건설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인프라 분야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동행한다.

이들은 현지 진출기업과 지상사 등이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의 현안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UAE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발주가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UAE 측의 현지화 기여수준 평가강화(ICV 제도) 등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쿠웨이트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면담해 압둘라 신도시 건설, 쿠웨이트 공항 운영 등에 쿠웨이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 추진될 국가철도망·메트로 투자개발 사업(약 180

억 불)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참여 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도 심도 깊게 논의한다. 또 쿠웨이트 국왕의 관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현장과 8월부터 운영 중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을 방문해 시공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카타르에서는 2022년 월드컵 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에 나선다.

김 장관은 압둘라 알 타니 카타르 총리 예방 및 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도하 메트로 그린라인,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등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주력 시장인 중동권역 수주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근 유가상승과 중동국가들의 탈석유화 정책을 활용한 전략적인 진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의 입 열릴까

검찰, 실무 총책임자 역할 의혹

국정감사를 앞둔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로 사법농단 수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은 19일 국감을 앞두고 있어, 이날 조사 결과와 수사 진척도 등이 질의 내용과 수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본다. 그는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거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본다. 그는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거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상대 민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행정소송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위기 당시 법리검토문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전교조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데도 임 전 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법종 기자 joker@

러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해수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

정부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 슬라비안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슬라비안카항은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삼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으며 용역업체 선정 등을 거쳐 착수보고회를 갖게 됐다.

보고회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항만·물류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과 슬라비안카항 개발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해수부는 이날 제시되는 주요 의견들을 러시아 정부 및 관련 기업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용역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기업들은 예전부터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물류 거점이 될 극동 항만 개발에 관심을 보였지만 러시아 경제와 경제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투자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슬라비안카항 개발사업에는 항만 개발권과 부지 소유권을 소유한 러시아 유망기업 ‘베르쿠트(Berkut)’가 직접 참여해 투자 위험요소를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19년 9월까지 슬라비안카항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관심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개발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욱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이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법종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제 개선방안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15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법회는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선변호제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현재 형사피의자와 피고인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등 제도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통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국선변호인 제도가 다양한 만큼 불투명한 국선변호인 선정과정, 과중한 업무량,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홀한 국선변호인 처우 등 문제점 역시 지적된다.

/이법종 기자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실험장 만든다

산업부,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제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상당부분 개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

성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환경, 국내외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 혁신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이 갖춰진 최적의 신산업 실험장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선도와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年 2조 쓰고도 사립유치원 방치? 교육청에 '집중포화'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

박용진 의원 "문제 확인하고 방치
횡령죄 처벌 받도록 법 개정할 것"

교육감들 "사립유치원 감사 검토"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목소리도
서울시교육청 종합대책 협의키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를 성토하는 여론이 관할 교육청으로 옮겨 붙었다. 유치원장들이 국고 지원비와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를 제 돈처럼 쓰는 동안 교육청은 뒷집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만 800여 곳에 달하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

는데 91%는 문제 있는 곳이었는 데도 문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원금 등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법적 한계에 따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 횡령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 적용으로 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감사 계획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일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주기적 감사'를 검토키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교육감이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교육부가 소집하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관련 회의와 자체 관련 부서간 회의 등을 통해 감사방식과 시기 등을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사립유치원이 800여곳으로 많아 자체 감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교육지원

청과 함께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방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규모별 사립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16일 박춘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감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비리 재발 방지와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등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추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차 공개한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4분의 1 정도가 대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와 추가 공개될 경우 더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국민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강

국민대학교는 지난 11일 교내 학술회의장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초청해 제516회 국민대 목요특강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UN과 글로벌시민의식'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 중 하나는 교육이며, UN사무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세계 시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지난 11일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UN과 글로벌시민의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국민대

향적인 사고를 토대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장, 보아오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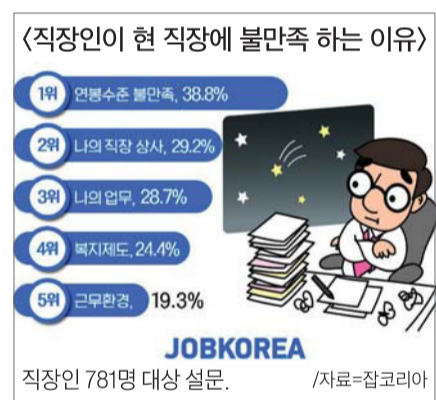
직장인 10명 중 8명, '사표 품고 출근'

잡코리아 직장인 781명 설문
잠재적 이직준비 51%
적극적 이직준비 28%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는 '잠재적 이직준비자도' 직장인 절반을 넘었다.

15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 만족도 및 이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30.3%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나머지 69.7%는 '불만족한다'고 했다.

현 직장에 대한 불만족은 여성 직장인



는 ▲연봉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응답률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상사에 대한 불만족도 29.2%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불만족(28.7%)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족(24.4%) ▲사무실 환경 등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19.3%) ▲기업문화에 대한 불만족(18.8%)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불만족(14.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직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8.0%는 매일 경력직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입사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1.0%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이직 의사가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용수 기자



(왼쪽부터) '흐르는 달' 2018년 조예령작. 2000년대 적의(재현품). '푸른산맥' 2018년 권기미작. /숙명여대 박물관

숙명여대 '한국 섬유예술의 정수' 중국에 소개

'심상: 한국의 색' 전시회

숙명여자대학교는 박물관이 '한국의 색'을 주제로 우리나라 섬유 예술 문화를 소개하는 '심상: 한국의 색' 전시회를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주중한국문화원과 북경북장학원민족박물관에서 동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 트래블링 코리아 아츠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국내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우수작품을 통해 한국을 알리며 전 세

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북경북장학원민족박물관에서 열리는 '심상: 한국의 색 - Traditional'은 인간의 심상을 비추는 색과 문양을 주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주중한국문화원의 '심상: 한국의 색 - Contemporary'는 색으로 연계한 전통과 현대의 만남, 전통을 재해석한 현대 작가전 2가지 공간으로 기획돼 한국의 멋과 색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품 65점과 현대작가 10인의 작품 40건 등 총 105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오뚜기

하반기 대졸신입 공채

오뚜기가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채용부문은 영업, 홍보영양,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마케팅, 디자인, 해외영업, 관리며, 지원대상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다. 채용인원은 총 100여 명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온라인) ▲1차 실무면접 및 심층인성검사 ▲2차 임원면접을 거쳐 2018년 12월 중 최종 입사하게 된다. 각 전형별 자세한 일정은 추후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세종대학교 애지현교회 이요섭 목사와 한국감리교 목사 합창단,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애지현교회 감리교 목사 합창단 초청 영어예배

세종대는 교내 애지현교회가 한국감리교 목사 합창단을 초청해 진행한 영어예배가 지난 10일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감리교 목사 합창단은 현재 재직하거나 퇴직한 목사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영어예배에서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강가로', '사랑으로' 등 찬송가, 소프라노 황후령 교수의 독창 '나의 하나님', '고

향의 봄', 한국감리교 목사합창단의 '원해'와 '나의 찬양' 합창이 진행됐다. 이어 유창진 목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세종대 이요섭 목사는 "금년 채플에는 한국인 학생 230여명과 외국인 학생 7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선물하세요 고마운분께



귀한 분들 일수록 귀한 걸 드려야죠.
몸에 좋은 성분을 12배 농축한
비타민하우스 시베리안 차가버섯
귀할수록 전문브랜드 비타민하우스



두산, 인니에 12억 상당 건설장비 지원

지진 피해 복구 위해 긴급투입

두산그룹이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약 12억 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두산그룹 고위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해양 조정장관을 만나 굴삭기, 발전기 등 장비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원하겠다는 두산그룹의 의사를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측은 피해 복구 시급한 시점에 두산의 장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빠른 시간 안에 지원



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산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선정한 뒤 현지 딜러를 통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두산이 지원할 건설장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형 건설장비와 두산밥캣의 소형건설장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 등이다. /정연우기자 yw964@



한국투자증권, 참벗나눔 봉사단 벽화그리기 봉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사내 봉사단체인 참벗나눔 봉사단과 임직원 자녀 30여명은 노후된 복지관 벽면에 꽃, 나비 등 자연을 담은 생기 넘치는 벽화를 그렸다. 또한 복지관 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컴퓨터 단말기 4대를 기증했다. /한국투자증권



KT,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3년 연속 1위
KT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표는 기업 지속가능경영 평가를 경제·사회·환경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초점을 맞춰 기업 활동을 분석한 결과다. KT 광화문 사옥에서 유엔지원SDGs한국협회 김경훈 사무대표(좌측)가 KT 경영관리부문장 이대산 부사장(우측)에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1위상을 전달하는 모습./KT

'창립 32주년' 파리바게뜨, 에코백 증정

결제금액 1만원 이상 고객

파리크라상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창립 32주년을 맞아 '파바에코백'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창립 32주년(10월 17일)을 맞아 기획한 것이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서 제품 구매 시 결제 최종 금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장바구니인 '파바 에코백'을 증정한다.

지난 7월 파리바게뜨는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10월 초부터 전 매장에서 재생종이 봉투의 유상판매를 시작했으며, 장바구니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창립 32주년을 기념해 '파바 에코백'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창립 32주년을 의미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친환경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오랫동안 사랑 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영화에서 배우는 창업전략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창업 누구나 대박을 꿈꾼다. 가급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은것이 모든 창업자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를 희망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유럽 민담에 등장하는 신데렐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박을 기다린다.

창업은 대박을 기대하지만 노력없는 대박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안시성'이 연일 흥행몰이 중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고구려의 영웅 연계소문을 능가한 전라가 양만춘장군이 당대종이시문을 격파한 속 시원한 이야기가 즐겨리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환경에 맞는 실행과 협업이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창업은 사람, 즉 고객을 얻는일 부터

다. 양만춘장군이 안시성내 주민들의 무한 신뢰는 동질감과 함께 믿음에서 부터이다. 15만명 대 5000명의 턱없는 병력수에서도 그들의 공격적 패턴과 차별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이 주효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창업도 그러하다. 좋은 창업 조건만이 우수한 실적을 단정할 수 없다. 소비자는 철저히 그들의 계산에 의해 구매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needs) 보다 원츠(wants)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반증이다.

지난 2006년 개봉한 '라디오 스타'에 나온 '비와당신'은 주인공대공의 흘러간 유행곡이었다. 소위 한물간 가수가 가지고 있는 과거지향적 사고는 전혀 현실에 동화될수 없는것이 사실이다.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메니저는 과거와 현실의 경계를 추억과 기억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냥 "맞아 그런사람이 있었지.."로 기억의 한 페이지로 인지한다.

즉 소통의 방향과 실천이 창업에서는 중요함을 배울수 있는 한 페이지였다. 소비자의 기억 지속성은 아이템보다 운영방

법의 차별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재미있게 본 영화 '명당'에서 보여지는 권력욕과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욕심이 금기를 넘어 윤리적 사고를 어지럽히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장사는 뉘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즉 목적성 구매고객들의 유동성인입지가 우수한 창업 결과를 지속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명당을 통해 지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실천하듯이 창업도 상권 내 고객과의 호환성을 위한 입지의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려한다. 하지만 고객의 유동성이 곧 흡입성과 수익성으로 치부하기엔 참으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창업은 입지, 자본, 아이템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중 제일의 경쟁력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차별적 경쟁력인 것이다.

극중 당대의 지관으로본 한 조승우는 "명당은 구하려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창업도 욕심과 희망만으로 성공창업을 실현할수 없는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청소년 96명에 상하이 문화체험 기회 제공

미래에셋박헌주재단

'제19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 탐방

미래에셋박헌주재단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19회 미래에셋 글로벌 문화체험단'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23곳의 학생 96명이 참가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예원, 상해과학기술관, 외탄 금융지구를 탐방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핀테크 산업에 선진화된 상해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에셋박헌주재단 관계자는 "해외 문화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문화를 접하면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이



'제19회 미래에셋 글로벌 문화체험단'에 참가한 96명의 참가자들이 중국 상하이 외탄 금융지구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를 계기로 큰 꿈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문화체험단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진행중인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금융 선진도시 상해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비전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사다. 현재까지 173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내년 1월에 진행될 제20회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커뮤니티 스토어 4주년
청년인재 양성사업 응원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스타벅스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점 오픈 4주년을 맞아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에 문을 연 스타벅스 대학로점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이자다.

스타벅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청년의 꿈을 위한 커뮤니티 스토어 기금모금 캠페인'이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발당 앞 광장(서울시 중구 무교동)에서 개최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인사

- ◆ 기획재정부 ◇ 부이사관 승진 △ 대외경제총괄과장 김후진
- ◆ 전북 전주시 ◇ 직급 승진(사무관) △ 국가 예산추진단장 노은영 △ 맑은 공기추진단장 임숙희 △ 덕진구청 서봉오
- ◆ 두산밥캣 ◇ 신규임원 승진(상무) △ 김상영
- ◆ 헤럴드 ◇ 헤럴드 △ 미래사업본부장 신창훈 △ 전략사업팀장 안주영 △ 문화사업팀장 김아미 △ 헤럴드 마케팅 모바일 AD팀장 이용덕 ◇ 헤럴드경제 편집국 △ 미래산업섹션 에디터 겸 IT과학팀장 최상현 △ 모바일섹션 에디터 겸 이슈팀장 조용직 △ VIBE팀장 이슬기 △ 미래산업섹션 4차산업팀장 홍승완 △ 소비자경제섹션 컨슈머팀장 한석희 △ 모바일섹션 모바일기획팀장 김상범 ◇ 코리아헤럴드 편집국 △ 모바일섹션 모바일기획팀장 김연세
- ◆ 뉴스투데이 △ 편집국 금융증권부장 강

준호

부음

- ▲ 이선자씨 별세, 박지원(민주평화당 국회의원)씨 부인상 = 15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장지 용인 처인구 용인공원묘원, 02-2227-7500.
- ▲ 김준세 씨 별세, 김의환(유엔개발계획 자문관)·경한(네이버시스템 전문)·태호(대한항공 사무장)·정현(전 아동미술강사)씨 부친상 = 14일, 서울 국립경향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431-4400.
- ▲ 김기례씨 별세, 김병호(신한생명 CBM지원팀장)씨 모친상 = 14일, 경기도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31-780-6162.
- ▲ 황영자 씨 별세, 이효열(김태홍 국회의원 보좌관) 씨 모친상 = 15일 오전 1시 50분, 충남 보령시 대천역전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41-932-1414.

벌써 호빵전쟁... 편의점서 '겨울 미식'에 반하다

CU 단팔 없는 호빵으로 승부수
세븐일레븐 정공법에 소포장 공략
GS25 프로젝트 수상작, 신제품으로

지난해보다 이른 추위가 시작되면서 유통업계도 일찌감치 동절기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편의점들도 예외는 아니다. 겨울 인기 품목인 호빵에는 새로운 맛을 입히고, 도시락 메뉴에는 공(功)을 더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들은 올 겨울 '맛'을 앞세운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단팔이 들어가지 않은 호빵부터 햅쌀로 만든 도시락 등으로 맛과 건강을 겨냥했다.

겨울 인기 상품인 호빵(찐빵) 판매는 이달 초부터 일찌감치 시작됐다. 추위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판매 시기도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빨라졌다.

GS25는 단팔이 들어가지 않은 호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감동란·치즈볼닭·꿀씨앗 호빵을 비롯해, 새우·고기만빵 등을



왼쪽부터 CU 찐빵도 요리다, 삼광미 햅쌀로 만드는 세븐일레븐 미반상품, 크래미 유부삼각주먹밥, 감동란 호빵. /BGF리테일·세븐일레븐·GS25·GS리테일

새롭게 선보였다.

CU도 '호빵 전쟁'에 뛰어들었다. CU는 '찐빵도 요리다' 시리즈 판매를 시작하고, 고추잡채·부추고기·갈비 등 총 3종의 찐빵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제품들은 모두 백종원 요리 연구가와 공동 개발한 레시피를 토대로 탄생했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를 담은 찐빵도 함께 내놨다. '홍콩반점 0410'의 신메뉴인 해물육 교자의 만두소를 넣은 'CU 해물육 찐빵'과 '새마을시장'의 메뉴 열탄불고기를 담은 'CU 열탄불고기 찐빵'이다.

세븐일레븐은 단팔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에 집중하는 정공법을 고수하면서도, 1인 가구 트렌드에 발맞춰 소포장(1입) 밥풀이·스위트콘 호빵 2종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색다른 맛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는 호빵과 달리, 도시락은 더 건강한 한끼에 초점을 맞췄다. 햅쌀을 사용한 제품은 매년 선보이고 있지만, 더 나은 맛과 품질로의 변화를 감행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삼각김밥 등 미반 상품에 올해 수확한 햅쌀을 사용한다. 농촌진흥청 최고 품질로 선정된 명품 삼

광미(米) 햅쌀을 사용하고 소하고 찰기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밥 소들리에'가 미반 상품 개발 및 품질 유지의 중심에서, 쌀 품종 선택부터 최종 상품화·사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고 있어 고품질 미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세븐일레븐 측의 설명이다.

GS25도 매년 농협으로부터 햅쌀을 공급받아 미반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음해 햅쌀이 나올 때까지, 도정한 지 3일 이내의 쌀만을 사용해 찰진 식감을 제공한다.

권오상 GS리테일 편의점 도시락 MD는 "GS25는 매년 햅쌀이 수확되는 10월부터 햅쌀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3일 이내 도정한 쌀을 농협으로부터 제공받아 최고의 밥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GS25는 매년 2000만톤 이상의 쌀을 사용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맛에 집중한 새로운 도시락·삼각김밥 류도 눈에 띈다. CU는 우삼겹이 들어간

'백종원 우삼겹 정식', 세븐일레븐은 '하와이안 갈릭쉬림프' 등 협업이나 발굴을 통해 기존에 없던 도시락 메뉴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GS25는 최근 '미리클 칠리&크림 새우볶음밥' 등 3종을 최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GS25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진행하는 쌀 관련 경연 '미(米)리클 프로젝트' 수상작을 제품화한 것이다.

또 김 없는 삼각김밥인 '크래미 유부삼각 주먹밥'을 새롭게 출시, GS25 주먹밥 MD가 일본 출장 중 직접 발굴한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고품질 유부를 사용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김대현 GS리테일 주먹밥 MD는 "크래미 유부 삼각 주먹밥은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주먹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며 "원재료 조달과 생산 공정 측면에서 다른 주먹밥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지만, GS25만의 차별화 상품을 고객들에게 다양하게 선보이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사례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어머, 이건 사야해!” 스타트업이 만든 ‘신박템’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

롯데마트

스타트업 박스 공모전 수상작 선별 '퀵3 양말&속옷 건조대'로 빠른 건조

롯데마트가 오는 18일 '스타트업 박스(Start-up Box)' 공모전 수상작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고객 니즈와 트렌드에 맞춘 아이디어 상품 출시에 물꼬를 튼다.

롯데마트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수상작은 세탁용품 분야에서 수상한 주식회사 아이디어니시의 '퀵3 양말&속옷 건조대(2입·사진)'이며, 롯데마트 단독 출시 상품으로 5500원에 판매한다.

'퀵3 양말&속옷 건조대'는 빨래집게 없이 건조대에 널기 어려웠던 양말, 속옷, 손수건 등 작은 빨래감을 고정시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조대다. 특히 반은 고정 핀에 세탁물의 두께에 따라 핀 위치 조정 후 세탁물을 끼워주면 흔들림과 바람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으며, 걸을 때에도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손 쉽게 걸을 수 있다.

한 개의 건조대에 최대 10개 작은 빨래



/롯데마트

를 널 수 있어, 양말, 속옷 등 매일 빨래하는 빨래감을 건조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며, 빨래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어 빠르게 건조된다.

또한, 옷걸이 형태의 공간활용 미니 건조대로, 문이나 문 손잡이, 건조대 등에 간편하게 걸어서 건조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 빨래를 건조해야 하는 자취생이나, 빨래감의 양이 많아 건조대의 공간이 부족한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을 제안한 주식회사 아이디어니시는 2014년 6월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생활에 편리한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이번에 채택된 상품인 '퀵3 빨래 건조대'는 발명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5연승한 상품으로 이번 롯데마트 입점을 계기로 첫 오프라인 유통채널 판로를 개척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말까지 '스타트업 박스' 공모전 수상작 중 '싱크대 거름망', '흡착 욕실소품' 등을 PB상품으로 출시해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며, 수상작은 창업진흥원 상품 개발비 지원과 함께, 롯데마트 입점 시 적용되는 기본 신용등급 요건 배제, 물류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적용 받는다.

장지수 롯데마트 퍼니처팀장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맞춤형 상품군을 보유해야 한다"며, "창업 육성 전문 플랫폼인 '스타트업 박스'를 통해 고객 니즈와 트렌드에 적합한 상품 개발 코칭 및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무역센터점 오픈 앞두고 글로벌 마케팅 박차

현대백화점면세점

윤아·정해인 모델로 발탁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속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오는 11월 1일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글로벌 마케팅에 시동을 건다. 한류스타를 광고모델로 선정하는가 하면, 중국 최대 여행 정보 커뮤니티와 제휴를 맺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가수 겸 배우 윤아와 배우 정해인을 면세점을 대표하는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아와 정해인은 화제성과 인지도뿐 아니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잘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광고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아는 걸그룹 '소녀시대'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대표 한류스타로 2016년 온라인 누적 조회 수 100억뷰를 돌파한 중국 인기 드라마 '무신 조자룡'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중국 내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해인 역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



쁜 누나' 방영 후 중국·일본·태국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급상승 중인 한류스타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윤아와 정해인을 내세워 영상 광고와 홍보물을 비롯해 글로벌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중국 최대 여행 정보 커뮤니티 '마펑위'와 오는 18일 '서울 강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는다.

마펑위는 약 1억 5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여행 정보 커뮤니티로, 월평균 여행 관련 게시물이 14만건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동원F&B, 동물병원 전용 '뉴트리플랜 습식파우치' 2종

씨에이치디와 손잡고 펫푸드 확대

동원F&B가 펫푸드 시장 내 다양한 경로로 사업을 확대한다.

동원F&B는 국내 동물병원 '씨에이치디(CHD)'와 함께 동물 병원 판매를 위한 전용 뉴트리플랜 습식파우치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CHD'는 '프루너스' 브랜드를 통해 전국 약 3000여개 동물병원에 펫푸드를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으로, 펫푸드 관련 R&D 인력과 함께 국내 유수의 수의과 대학과의 산학



협동을 통해 수의사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업체 중 하나다. 이번 협업을 통해 동원F&B는 전국 대부분의 반려동물 전문 병원에 뉴트리플랜의 우수한 펫푸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중 '뉴트리플

랜 아미노레딕스'와 '뉴트리플랜 뉴트리메딕스'로, '뉴트리플랜 아미노레딕스'는 반려묘를 위한 습식 파우치로, 참치 붉은살과 홍삼, 크랜베리 등을 담아 타우린, 라이신, 아르기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뉴트리플랜 뉴트리메딕스'는 반려견들의 영양을 위한 황태를 중심으로 홍삼, 후코이단 등을 통해 필요한 칼슘과 아미노산을 공급한다.

특히 두 제품 모두 특허원료인 길경추출물, 발효홍삼추출물 등을 담아 반려동물의 면역에 도움이 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국야쿠르트

'핫브루 by 바빈스키' 출시

한국야쿠르트는 에스프레소 추출 원액을 담은 '핫브루 by 바빈스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핫브루 by 바빈스키'는 로스팅한 원두를 고온에서 빠르게 추출한 원액을 소포장한 커피다. '월드브루 by 바빈스키' 제품과 마찬가지로 원두의 로스팅 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부럽지 않은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과 향이 특징이다. /서민용 기자



KGC인삼공사 '굿베이스'

신제품 '홍삼담은 월드베리'

KGC인삼공사 '굿베이스'가 신제품 '홍삼담은 월드베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삼담은 월드베리'는 세계 유명 산지에서 자란 아시아베리·링곤베리·엘더베리와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을 더한 제품이며, 정관장만의 엄격하고 간간한 품질검사를 거쳤다. /박인용 기자

10년·5조 걸리는 신약개발

(개발기간·개발비용)

AI활용땀 1년·0.5조면 가능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빅데이터 기반 생산·효율성 ↑
의료데이터 73일마다 2배 증가
“변화 따르지 못하면 도태될 것”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신약개발 기술을 활용하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현재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를 활용해 AI를 활용하면,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에 대한 실패율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약개발에 평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10년, 50억달러임을 감안하면, AI 신약개발 플랫폼 하에선 개발 기간 1년, 개발비용은 5조원에서 5000억원 단위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Pharma Korea Conference) 2018’에 참석한 전세계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AI 활용은 신약개발에 필수적이며 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AI 신약개발 기업인 뉴메디의 마이클 제누지크 바이오의학 사업책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신약개발에 평균 10년의 기간과 50억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시장성이 있고 잠재 고객이 많은 약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AI 기술로 개발비용과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면 그동안 소외됐던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Pharma Korea Conference) 2018’에 참석한 전세계 AI 신약개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AI가 보건의료와 생명공학에 미치는 영향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노플렉서스 건잔 바르 최고경영자(CEO) “2020년이 AI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1조달러가 넘고, 의료지식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매 73일마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크리닝 하는데 AI가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신약개발의 성공을 위해선 정보의 공유와 데이터 분석이 필수조건으로 꼽혔다. 개발 사례, 실패 사례, 환자 기록, 보험청구, 보험급여 등 등 전세계 여러 분야의 데이터다.

IBM 왓슨 파스칼상페 박사는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같은 기업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 이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과 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해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AI와 전문인력의 능력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건잔바르 CEO는 “AI가 신약개발에 활용되려면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동일

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사 뿐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학자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자발적인 협업과 AI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든 지적도 이어졌다.

신테카바이오 양현진 박사는 “AI도 중요하지만 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업을 위해서는 일단 AI 신약개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라며 “다양한 회사들이 가진 빅데이터 분석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업과 지속적인 데이터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탠다임 송선옥 박사는 “한국 제약사들은 데이터 준비보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제약사 실무진들은 AI의 활용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 이 흐름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홈쇼핑

이른추위 맞아 방한용품 대거 편성

홈쇼핑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를 맞아 방한용품을 대거 편성했다.

홈쇼핑은 15일부터 방송을 통해 에어룸 극세사침구 등 보온 필수 아이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한 에어룸 극세사 침구세트는 마카롱 와플 양털형 극세사 원단으로 구성돼 있어 포근함과 따뜻함을 선사한다. 충전재는 겹겹이 쌓인 형태의 다운터치 솜으로 세탁 시 솜 꺼짐이 덜하며 보다 폭신한 쿠션감을 자랑한다.

16일에는 ‘바로 핫팩’을 방송한다. 이 제품은 강화속의 훈증효과에 라벤더 향을 추가해 아로마 테라피 기능까지 더했다. 허리용과 아랫배용으로 구분돼 원하는 곳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평균온도 50℃로 6시간동안 효과가 지속돼 외출 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주



홈쇼핑이 19일 선보일 예정인 ‘일월 워셔블 전기매트’

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핫팩은 간편하게 옷 위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19일엔 ‘일월 워셔블 전기매트’를 선보인다. 고주파 공법을 채용한 이 제품은 불륨감과 쿠션감을 살리고 생활방수 기능으로 원단 손상을 최소화했다. 단자를 방수로 만들어 매트가 고장날 걱정 없이 물빨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셀트리온

“혈액암 치료제 유럽 점유율 30% 돌파”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 ‘트룩시마’(성분명 리룩시맷)가 올해 2분기 기준 시장점유율 30%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트룩시마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스림프종과 자가면역 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치료에 쓰는 바이오시밀러다. 오리지널의약품은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리룩산(국내 판매명 맵테라)이다. 지난해 2월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영국부터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구 IMS헬스) 기준 올해 2분기 트룩시마가 출시된 유럽 18개국에서 리룩시맷 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다. 영국 64%, 프랑스 39%, 이탈리아 32% 등 주요 5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서 점유율은 34%로 집계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트룩시마 출시국을 현재 유럽 22개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인공지능 약물설계 플랫폼 도입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AI) 기반 ‘약물설계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는 AI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실패 확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신약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SK바이오팜은 국내 최초로 AI 기반 약물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약연구에 적용하

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 플랫폼은 SK바이오팜이 지난 20여년간 축적해 온 중추신경계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SK C&C와 협력해 신약 개발에 최적화되도록 개발한 AI 알고리즘이다. 약물의 특성을 예측하고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제안하는 AI모델, 화합물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합물 데이터 보관소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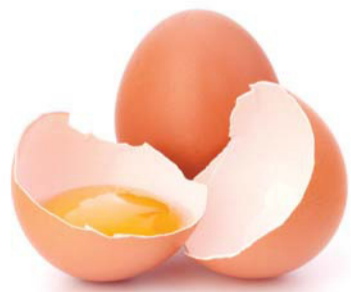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은 예고된 인재

“알가공품 살균처리 현황조차 파악 못해”

판단·유통 관리 제조업체에 위임

살균 의무화 등 관련규정 개정해야



지난 9월에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 2207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린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식약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액상란(식약처는 알가공품으로 표기)이 살균됐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당국은 당시 집단식중독 사태는 초코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계란 흰자(액상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부적합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정작 살균·비살균 판단과 유통 여부를 제조업체에 사실상 맡겨 둔 것으로 확인됐다. 액상란은 제과·제빵, 수산·육가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알가공

품의 경우 액상란 가공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에 대해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기재 일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부적합 액상란이 완제품 제조업체에 납품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실제로 당시 풀무원푸드머스에 문제의 케이크를 납품한 더블원에프앤비는 식약처로부터 2016년 5월 23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받았는데도, 식중독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

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기 의원은 문제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당시 집단식중독 사건에서 원인으로 확인된 살모넬라균은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살균하면 제거된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데기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만큼, 비살균 액상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비살균 액상란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알가공품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5만3210t에 달한다. 이를 계란 개수로 환산하면 10억 6420만8840개에 이르는 수치다. 우리나라 연간 계란 소비량(1인당 239개)을 고려하면, 국민 445만2756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당장 액상란 가공과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 재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처럼 액상란 살균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휴롬엠티 출시 1주년... “휴롬주스 맛보세요”

원액기 구입고객 증정 프로모션

휴롬은 휴롬엠티 출시 1주년을 맞아 휴롬엠티를 비롯한 원액기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휴롬주스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휴롬은 이달 28일까지 옥선, 인터파크,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전체 온라인몰에서 휴롬엠티, 블라썸, 시그니처, 주지아로 원액기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휴롬 영양균형 주스세트 5종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휴롬엠티는 드림 내부 바닥이 3도 기울어져 있어 착즙 후 주스가 드림안에 고이지 않고 마지막 한방울까지 배출되도록 설계됐다. 휴롬엠티 이후 출시된 원액기는 바닥이 기울어진 텀링 드림을 적용하고 있다.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주스 종류는 지금어때, 잠시잠깐, 어릴적에, 오늘하루, 농치지마 주스로 케일, 시금치, 당근, 비트,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등 다양한 채소 과일을 배합해 휴롬 원액기로 쥘 완제품 착즙주스다. 주스는 원액기 발송 후 일주일 내에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삼성물산,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그라니트' 론칭

신사동 가로수길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스웨덴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라니트'(GRANIT) 국내 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라니트는 1997년 설립된 브랜드다. 북유럽풍 스웨덴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실용성, 품질, 아름다움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만 30여개 단독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30㎡ 규모의 그라니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상 1층과 2층은 그라니트 대표 상품을 테마별로 묶어 구성했고, 지하 1층은 차별화된 공간 연출로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아러바우트(r.about)' 카페를 운영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스웨덴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라니트' 플래그십 스토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오픈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김동운 해외상품사업부 상무는 "홈퍼니싱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높아

지고 있다"며 "스웨덴을 기반으로 한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문화를 전파하며 국내 홈퍼니싱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가짜뉴스' 시대, 해법은?



기지수첩

구서연 (산업부)

한때 주류 언론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쪽이 아닌 한쪽의 목소리만 자극적으로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동영상상과 글로 공유된다. 지인이 건넨 동영상이라면 의심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심한 경우 틀린 정보를 철석같이 믿어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작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다. 포스트 트루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탈진실'로 이제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더 이끌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진짜보다 가짜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사실 가짜뉴스는 이 시기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유언비어, 루머 등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파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을 뿐이다.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신고만 들어오면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게시물 내리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사업자는 불법 게시물일지라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권한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원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제재하는 법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 없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가짜뉴스는 오늘도 퍼지고 있다.

/yuni2514@metroseoul.co.kr

효성 장애아동 가족들과 '1박 2일' 여행

효성은 자사 임직원 가족이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장애아동·청소년 가족과 1박 2일 동반 여행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효성과 푸르메재단이 함께 하는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가족 여행에는 효성 임직원 열 가족과 장애아동·청소년 열 가족이 참여해 한 가정씩 짝을 이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춘천 막국수 체험관을 찾아 막국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레크레이션 시간과 함께 야외 바비큐파티를 진행했다. 또 이튿날에는 인근 체험마을을 찾아 과수원에서 직접 사과를 따보기도 했다.

평소 집과 치료시설을 오가느라 가족 여행을 하기 힘들었던 장애아동 가족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 효성 임직원 가족 역시 장애아동 가족들과 함께 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효성은 2013년부터 6년째 장애아동·청



지난 13~14일 효성 임직원 가족이 강원도 춘천 일대에 장애아동·청소년 가족들과 1박 2일 동반 여행을 진행했다. /효성

소년의 재활치료를 후원하며 장애아동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9월 8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다. 60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72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84년생 오랜 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말	54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66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7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90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소	49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61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73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겠나. 85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호랑이	55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67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79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1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용	50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62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7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86년생 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원숭이	56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68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다. 80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92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에 상쾌.
토끼	51년생 자기중심에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63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75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87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닭	57년생 확실한 거절이 관계를 더 좋게 한다. 69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제 가 사도 새우전 얻어먹는다. 81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디라. 93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된다.
양	52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4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76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8년생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돼지	5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0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82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 94년생 기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뱀	53년생 자손의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65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8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59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면 힘껏 두드려라. 71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이다. 83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95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7	6	8		
				5	2	9	3	
	1	2		6				5
5		3			7			9
9			5			8	1	
4	8	5	6					
				5				

	5		2					
	6	2			8			
1					3	4		
		1		8		2	6	
				3	2		7	5
		6		9		3	8	
2						6	9	
	8	7			9			
3			5					

스도쿠 정답

8	4	1	2	5	7	9	6	3
7	9	5	8	6	3	2	1	4
2	6	1	4	9	5	8	7	3
9	1	8	7	3	5	7	4	6
6	2	4	7	8	1	9	5	3
5	7	9	6	2	4	3	1	8
3	6	2	5	9	8	1	7	4
1	8	9	4	7	6	5	2	3
4	5	7	6	1	2	8	9	3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운회 할 때 인연, 사람과 개

사무치게 그리운 아가들 김산과 김별이가 약속하듯이 2017년 늦가을 한 달 기간을 사이에 두고 지장보살님 곁으로 간지 1년이 되간다. 김산은 독일산 슈нау저였다. 삶에는 가슴 아픈 일이 늘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지난 추석 때에는 차례를 올리면서 한가위 21일 기도에 들어갔다. 마음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였던 마음을 담았다. 지난 2001년, 추석을 얼마 지나지 않은 즈음에 환영과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식이 올 거라는 부처님말씀과 함께 자그마한 검은 색을 띤 새끼강아지가 큰 눈망울로 필자를 처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 아가는 마치 자신을 두고 엄마가 어디 갔다 오느냐는 표정이였다. 내가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무슨 일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서 2001년 음력 구월로 접어들었고 이번에는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잠깐 인 듯싶는데 며칠 전 보았던 그 아가 강아지가 다시 관음보살님 품에 안겨서 내게 왔다. 그때 필자는 깨닫게 되었다. 아, 자식으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오게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서 2006년, 우연한 기회에 어느 인연 있는 분이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겠냐며 물어왔다. 현실과 부처님의 세계에서 본 그 강아지가 스쳤다. 두 말없이 그러겠노라 했다. 새롭게 펼쳐지는 현실에서 아가가 왔을 때의 모습은 관음부처님 품에 있던 실제 그대로였다. 그렇게 오게 된 아가는 필자의 성안동김(金)을 따고 병술년(丙戌年)에 온 인연을 반영하여 이름을 산(山)으로 김산(金山)이 되었다. 2006년 와서 2017년 칠성별을 타고 지장보살님 품으로 간 김산이는 2020년 9월 다시 올 것이다. 그리워하는 내게 다시 오겠노라고 늘 얘기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생에서는 필자가 김산 엄마였지만 내생에는 김산 이가 나를 돌보는 인연으로 만날 것이다. 서로 돌고도는 인연법이기. 인간에게 가장 인연 깊은 축생이 있다면 바로 '개'이며 인간들이 육도를 윤회할 때 가장 많이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축생이 사람과 개이므로 절대로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대승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62호

한전,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116억' 휴지 조각

펀드운용사에 한전 간부 재취업 전력 신산업펀드 실적은 '전무' 펀드 운용보수 등 재점검 해야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해 1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력 신산업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 186억원과 비교해 38%에 불과한 액수로 116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고 왔다. 최근 5년여간 주식 보유 기업 수는 21

개에서 184개로 늘었다. 하지만 주식 취득가액 대비 실제 가치(장부가액)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에는 37.8%까지 폭락했다. 특히, 전기요금 대신 받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원에서 현재 2억원까지 떨어져, 취득가액 대비 주식의 가치(장부가액)가 88.9%에

서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전은 지난 4월에서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신산업펀드 투자현황 및 국회에 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투자액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투자액은 전무했지만, 같은 기간 한전이 상위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지급한 운용보수는 100억원이 넘었다.

2017년 58억원, 올해 43억원 등 101억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력 신산업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운용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해 상위펀드가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하위펀드는 3개의 민간 위탁사가 전담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전력 신산업펀드의 투자실적은 총 5012억원의 펀드조성금 중 하위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금 150억원에 불과하고, 상위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은 전무했다.

어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며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력 신산업펀드의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는 전직 한전 고위직 출신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낙하산 논란도 나온다"며 "적절한 펀드 운용보수 산정 등 전력 신산업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2018년도 제6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오전 11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본사에서 제6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역근로자 504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캠코

캠코 용역근로자 504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본사에서 제6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역근로자 504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캠코는 올해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4월 26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및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6차례, 실무협의회 6차례, 근로자 대표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용역근로자 504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환대상인 캠코의 용역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 위탁개발 건물(20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지 위탁개발 건물(4개)과 캠코가 보유한 건물(12개)에 대한 시설관리, 경비, 미화업무 등을 맡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퇴직월 하루 근무해도 한달 월급 지급”

위성곤 의원, 산업부 소관기관 분석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 747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47건,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만도 14억2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을 비롯한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무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사례 792건 중에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월급 전액을 수령한 사례만도 39건이 확인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퇴직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한 근무년수 2년의 본부장에 대해 867만원을 지급했다. 강원랜드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했다면 지급할 금액은 28만원이지만 839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퇴직월 단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80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만도 세 차례나 확인됐다.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서 퇴직월 1일 근무 퇴직자 16명에게 초과지급된 금액만도 3521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지침 위반 전

체로는 94건, 금액으로는 1억8168만원이었다.

산업부 소관기관 중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120건을 통해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초과지급했다. 초과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침 위반 116명에게 2억956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권 행기가 도를 넘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신보, 신임 감사에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

신용보증기금은 신대식(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신임 감사에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1951년생인 신 감사는 통영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장과 신탁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거쳐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

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지냈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2년이다. /김희주 기자



장애인고용공단-국립암센터 의료·보건 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5일 국립암센터 첨단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암센터가 장애인고용

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력 채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 분야에 장애인고용 모델 사례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병원 내에서 기존 직무 중에 중증장애인이 진 입할 수 있는 틈새 직무를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적응 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내용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 참여 사례 및 변화된 경험담, 신중년이 인생 후반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생3모작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 등이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및 기업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8명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우수사례집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중장년일자리 서비스 활성화 및 인식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 | 감 | 연 | 론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27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200여개



사진기사. 1200~1500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광엑스포, 9만명 방문... 283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세계 18개국서 120개 기업 참가 대마산단에 4개 기업 입주 의향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이하 '영광엑스포')가 성황리에 폐막 되었다.

전남에서 개최하는 첫 산업박람회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e-모빌리티 산업 국내외 전문가와 바이어 뿐만 아니라, 초·중·고 대학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 8만 7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영광이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에서 미래형 e-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동남아 등 16개국 23개사의 해외 바이어들이 엑스포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대풍종합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준성 영광군수가 엑스포장의 전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상사 등 42개 기업과 2,8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다는 평가다.

또한, 엑스포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타 지역에 소재한 e-모빌리티 관련 4개 기업이 영광 대마산단에 적극적인 입주의

향을 보이면서 향후 투자유치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엑스포는 18개국 120개사(국내 97개사, 해외 23개사)가 참가하여 기업 제품PR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산업부·국토부·환경부가 합동으로 e-모

빌리티 보급, 안전기준,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갖는 등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집배용 e-모빌리티 보급 시범사업을 영광군과 함께하기로 업무협약도 맺었다.

관람객이 실내·외 체험장에서 직접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농업용전동차, 초소형전기차까지 e-모빌리티 전제품을 직접 타보고, 구입할 수 있는 종합마케팅장으로 운영하여 참가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신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학생과 프로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드론 경주 대회 및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전, 로봇 케이팝공연, 아이돌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 예정인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업 캡시스 박영태 대표는 "새롭게 출시한 전기차를 관련업체와 국내의 바이어, 정부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면서, "e-모빌리티 산업의 전국적인 홍보와 소비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박람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혁신성장특구를 지정 받아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e-모빌리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영광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대마산단에 입주한 4개 기업이 올 하반기에 생산공장을 착공하여 내년부터는 호남권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 생산공장이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metroseoul.co.kr

“온가족 함께 할로윈축제 즐겨요”

27~28일 체인지업캠퍼스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이하 체인지업캠퍼스)에서 10월 마지막 주말인 27일, 28일 양일간 '2018년 할로윈 축제'가 개최된다.

체인지업캠퍼스(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대표적인 시즌 이벤트인 이번 축제는 캠프를 할로윈 테마로 꾸며,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와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유령사탕 만들기 ▲플라로이드 사진꾸미기 ▲할로윈과 관련한 영어표현을 배울 수 있는 'Trick or Treat' 수업과 퀴즈게임뿐만 아니

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K-pop댄스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연기와 노래를 전공한 원어민 강사들의 영어 창작 뮤지컬 '아나스타샤'와 '좀비 친구들과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라는 제목의 야외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태권도 시범공연과 버블공연 등이 있다.

유도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할로윈을 테마로 한 다양한 행사와 색다른 체험을 통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20일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

'2018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의정부 시청 앞 잔디광장 일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는 도내 장애인가족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축제는 '우리가족 Fall(秋) in love'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야외무대에서 축제를 진행함으

로써, 장애인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로 구성된 예술 동아리들이 무대에 올라 K-POP 댄스, 밴드연주, 난타, 합창, 라인댄스, 우쿨렐레 연주 등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가수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와 함께, 미9군 군악대, 비보이팀 '퓨전MC' 등이 공연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궂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김승열 기자

학생 주도 학교주변 아동 안전지도 제작

광주 남구, 위험장소에 CCTV 설치
가로등 보수하고 순찰 강화하기로

광주 남구 관내 초등학교들과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초등학교들의 성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등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 관심이 되고 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제석초교와 대촌중양초교, 방림초교에서 학교 주변에 대한 위험 요인 및 범죄 위험 지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도가 제작됐다.

이 지도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와 골목길, 공터, 놀이터, 도로 등을 직접 탐방한 뒤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을 각각 붉은색과 초록색 스티커로 표시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방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안전 지도에는 '신호등 고장과 횡단보도선이 흐려 위험하다'거나 '차들이 빨리 다녀 위험', '형·오빠들이 비비총을 쏘아 위험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제석초 지도제작 결과 발표.

남구는 학생들이 제작한 아동 안전지도를 바탕으로 위험 장소로 파악된 곳에 CCTV 설치 및 가로등을 보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학부모와 교사, 주민들이 함께 참여토록 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아동 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주

도로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 7년간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하게 됐다"며 "안전지도 제작 결과물은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봉태경 기자 bcy2020@

“가을여행, 영광으로 오세요”

영광군, 체험·숙박 등 이벤트

영광군은 오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FALL IN 영광, 영광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가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영광군의 대표 가을 관광지로는 단풍 명소로 알려진 천년고찰 불갑사,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의 전망대 칠산타워, 노을이 아름다운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백수해안도로 등이 있다.

영광군은 가을 여행주간 기간에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과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영광여행' 여행주간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추억을 공유한 후 영광군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영광군 특산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원도심 활성화 등 민선7기 공약 실행

전남 무안, 8대 분야 77개 공약 확정

전남 무안군은 민선7기 '군민과 함께 하는 생동하는 행복무안' 실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군은 김산 무안군수가 후보시절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이행 검토와 보고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8대 분야 77개 공약, 90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선7기 확정공약은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 10개, 부자되는 농수축산분야 28개, 함께하는 행복복지분야 12개, 희망가득 새 일자리분야 7개, 찾아오는 문화관광분야 7개, 열린행정 안심교육분야 10개, 쾌적한 생활환경분야 8개, 살고싶은 명품낙약분야 8개 등 8대 분야 총 77개

사업(90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공약 사업을 보면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제시했다.

부자되는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농민수당 지급 ▲첨단 스마트팜 조성 ▲로컬푸드 ▲양파 마늘등 주요작물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위판장 건립 ▲갯벌낙지 수산자원 조성 ▲동물복지형 축산 육성 ▲김 명품화 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함께하는 행복복지 분야에서는 ▲행복택시 운영 확대 ▲출산·육아 지원 ▲장애인 이동차량 확충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가득 새 일자리 분야에서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청계3농공단지 조성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등 7개 사업이 확정됐다. /전남 무안=양승경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1 | 해질 17:54

10월 16일(화)
음력 : 9월 8일

수도권 날씨
9 ~ 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 연천 4/19
- 동두천 6/20
- 가평 4/19
- 파주 5/20
- 서울 9/20
- 양평 7/19
- 인천 11/19
- 수원 8/18
- 용인 8/18
- 평택 7/19
- 백령도 12/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동북아 중심 등 5대 시정·138개 과제에 16조 투입”

‘살고 싶은 도시’ 박남춘 인천시장의 100일

인천시가 시정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선7기 4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100일 간의 소회와 함께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분야별 시정과제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탈한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행사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의전을 대폭 간소화하고, 시장실을 개방해 시민과 시장실 사이에 문턱을 낮췄다. 지난 여름 폭염 시 무더위쉼터 대폭 확대, 시청사 주변 1인 시위자를 위한 그늘막 설치, 상수도검침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작지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다.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고식으로 진행되던 형식적인 회의는 없애고 시장이 실·국을 찾아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부터 평가까지 통계·빅데

소통채널 넓히고 국비 확보 구슬땀 토론회·투표 등 시민들과 함께 민선 7기 시정운영 로드맵 완성 “새로운 인천 위한 소명 완수할 것”

이터 기반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인사제도 개선과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위해 10월 중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정의와 소통, 협치,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시정철학 실현을 위해서도 착실히 준비해왔다. 조직개편을 통해 협치, 소통, 혁신 조직을 대폭 확대해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도 대폭적인 개편을 구상 중에 있다.

취임하자마자 군·구 단체장 워크숍,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해 협치의 길을 열었고, 정부, 정당,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과 57회를 만나 소통하면서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 시장은 이날 “출범 후 100일 동안 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시

민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민선7기의 첫문을 잘 열 수 있었다”며 “새로운 인천은 이제 또 시작이다. 민선7기는 묵묵히 그려나 최선을 다해 인천 발전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공모와 온오프라인 투표, 시민토론회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이 직접 민선7기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결정했고, 시민, 내·외부 전문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의 기초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의 5대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20대 시정전략과 138대 시정과제를 확정해 민선7기 시정운영의 로드맵을 완성했다.

첫 번째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민선7기의 철학이 담겨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로 주요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

두 번째 시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으로 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잘사는 인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서해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친수 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세 번째 시정목표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이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기반으로 제2의 개항을 열어나가고 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4차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와 연계한 일자리 확대와 창업지원,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민선7기 5대 시정목표와 138대 시정과제 실현을 위해 비예산사업 21건을 제외하고, 117개 사업에 약 1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민선7기 임기 내에는 약 9조 8천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등을 제외한 시비는 1조 7천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8대 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32건으로 향후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는 2019년까지 모두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금융의 ‘지속 가능 성장’ 해법 제시

서울시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 오늘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진행

서울시는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금융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지속가능금융활성화방안과 금융중심도시의 역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도전·기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등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조연설은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

안 및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ING 은행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헤드인 레오니 슈레브가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와 사회적 금융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고,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확대 방안, 서울시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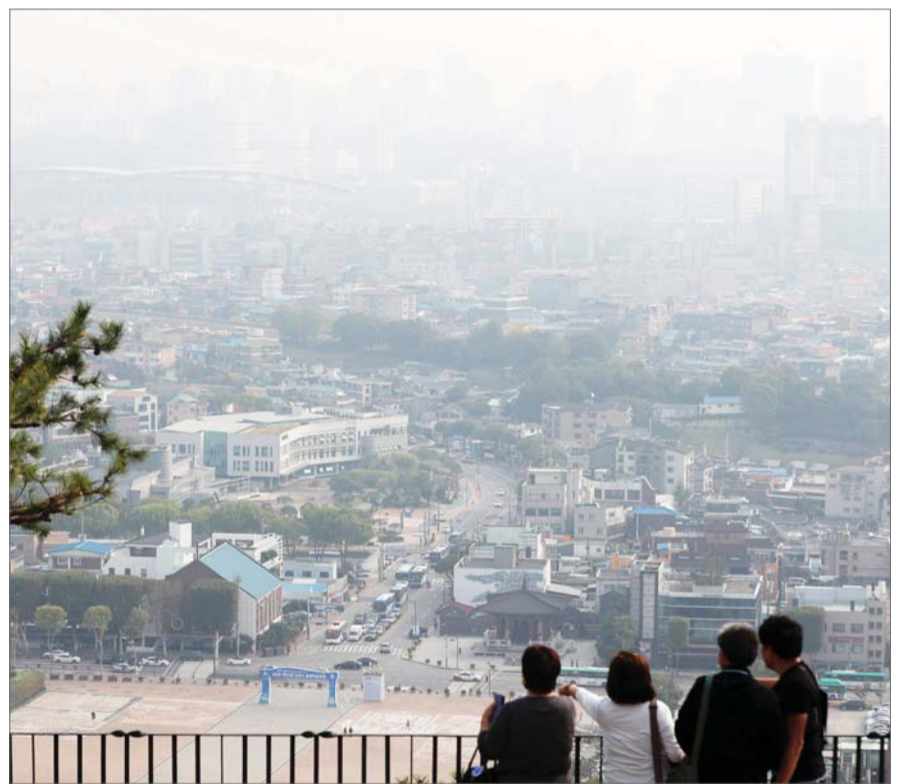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도전·기회와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홍콩 후오 시티 오브 런던 그린 파이낸스 국제고문 및 인베스틱 에셋 매니지먼트 대표, 마이크 워들 지엔그룹 인텍스 대표, 조나단 드루 H SBC 홍콩지사 인프라스트럭처 앤 리얼 에스테이트그룹 매니징 디렉터가 연사로 나선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및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이스라엘, 호주 등 선진 금융도시의 사회적 금융 사례와 서울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슈로미 지드키 소셜 파이낸스 이스라엘지사 최고운영책임자, 케이티 피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총리실 사회 투자·혁신부 디렉터, 아서 우드 토탈 임팩트 캐피털 창업자 등이 참여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국제금융콘퍼런스는 세계 경제, 금융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금융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와 아시아 중심지로서 서울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전문가와 일반 시민, 그리고 미래 전문 금융인을 꿈꾸는 학생 등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kim10



올 가을 첫 미세먼지 엄습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장대에서 관광객들이 뿌연 수운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 겨울 AI 최소화’... 경기도 선제방역 돌입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에 24억 투입

경기도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에 나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 겨울철에 비해 올해 초 도내 AI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실제 2016~2017년도 동절기에는 124건이 발생했으나 2017~2018년에는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전 대규모 발생을 계기로 오리농가 사육제한, AI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살처분 및 7일간 발생 시군 이동제한,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 알차량, 분뇨차량 등 위험도가 높은 차량의 농장 출입차단이 함께 추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추진에 10억 원,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조



경기도가 방역살수차를 동원해 도내 시군에 선제적 방역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경기도

기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하고, 산란계농장 알 반출 및 분뇨반출을 중점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 AI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 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능가만 방문하도록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듬는 ‘권리보호센터’ 문 연다

서울시는 16일 국내 최초로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안국역 인근 운현 SKY빌딩 9층에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뜻한다.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요양 보호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26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에서는 무료 심리상담, 감정회복을 위한 치유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도자기로 韓 식문화·쌀의 역사 되짚는다

한국도자재단 ‘알알이 쌀알’ 전시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1월 8일까지 인천세계도자센터특별전 ‘알알이 쌀알’을 개최한다.

알알이 쌀알 특별전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018 이천 쌀 문화축제’ 연계 전시로 도자기를 통해 한국인의 식문화와 쌀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천한봉, 김정옥, 황종례, 신철, 김도영, 척 하인즈, 호시 토시로, 신조사다쥬, 후야나 멘도사 등 국내외 도자작가의 작품 49점으로 구성된다.

1부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식기와 농경시대의 제기를 추정해볼 수 있는 토기와 도기를, 2부에서는 근대의 쌀독과 밥솥 등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3부에서는 조선시대 식생활을 대표



한국도자재단이 ‘알알이쌀알’ 특별전을 위해 작업실에서 작품구상 등 기획을 하고 있다. /한국도자재단

한 막사발인 이도다완 작품으로 구성되며, 이도다완을 재해해 낸 ‘조선 다완의 거장’ 천한봉 명장의 작품 뿐 아니라, 김정옥 명장, 황종례 작가, 신철 작가 등 다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명장들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이 전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경기 이천=김승열 기자 kimsy@



[금융] DGB대구는행 지배구조개선안 두고 지주사 vs 이사회 대립 04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116억' 휴지 조각 L4

미혼모·다문화가정에 '따뜻한 손길'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에이원

유아용품전문 기업 에이원은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다. '아이의 행복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이 이를 증명한다. 에이원은 보다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물품 및 후원금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에이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보호 시설 등에 유모차와 카시트 등의 유아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매달 5명의 미혼모들에게 총 10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희망 나눔 사랑 나눔' 기부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에이원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모차를 전달했다.



2018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



에이원 IFC몰 직영점.

◆행복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미혼모 가정지원'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자란다. 이에 에이원은 양육 환경이 어려운 미혼모들을 지원해 엄마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하고 있다.

먼저 2017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유기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미혼모 보호에 앞장서는 '주사랑공동체'와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100만원씩 기부하여 5명의 미혼모에게 매달 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미혼모 가정에서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5천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주사랑공동체'에서 보호 및 후원하고 있는 60여 명의 미혼모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에이원의 대표 제품 중 유모차 60대, 카시트 40대를 선물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4년 12월과 2017년까지 3차차레에 걸쳐 미혼모 지원 및 해외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총 1억 750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지원한 바 있다. 기관에서 보호하는 미혼모와 해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한해 진 유모차로 알려진 '리안'의 유모차, 영국 프리미엄 유아용품 '조이'의 카시트, 네덜란드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뉴나의 대표 제품' 등의 전달했다.

'베이비박스' 운영, 생명 살려 미혼모에 매달 양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시설·다문화가정에 유모차·카시트 등 유아용품 선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아이의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는 만큼 에이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에이원은 2012년부터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천사의 집'에 물품 지원 및 기부금 전달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위캔(W e Can)과 함께 사랑의 쿠키 바자회를 진행하여 수익의 일부를 기관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2013년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스컵 및 이유식기 등을 지원했으며, 이의한 대표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이들을 보살피는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했다.

◆차별없는 행복 만들기 위해 '다문화 가정 지원'

에이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국내로 이주한 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다문화가

정'에도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고 있는 것.

에이원은 2015년 하나금융 그룹에서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다문화 지원센터 '다린'에 '리안(RYAN)'의 유모차 100대를 지원했다. 전달된 유모차는 '다린' 다문화지원센터와 서울 글로벌 센터, 서울 서남권 글로벌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같은 해에 진행된 '리안 다문화가정 지원 기부'는 유모차 업계 최대 규모인 8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진행됐다.

에이원 관계자는 자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엄마와 아이의 행복을 응원하는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꾸준히 해 온 활동들"이라며 "저출산 등의 이슈로 인해 유아용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아이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원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에 수여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인증 획득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자녀 가족 수당제, 출산지원금, 가족 건강검진 등 보조금 지원과 함께 매주 셋째주 금요일 '패밀리데이'와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직원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사진=에이원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기부 협약식.



에이원이 미혼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사랑공동체에 유아용품을 전달했다.



에이원이 음성꽃동네 천사의집에 사랑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